



성가소녀회(聖家小婢女會, Little Servants of the Holy Family)

성가소녀회 마크는 예수-마리아-요셉을 상징한다.
첫째 기둥 J는 예수(JESUS), 가운데 M은 성모 마리아(MARIA)
둘째 기둥 J는 요셉(JOSEPH)을 형상화한 것이며, 원은 수도 공동체를 뜻한다.
하느님의 종들로서 구원사업을 이룩하기 위한 공동체적 생활을 하신
예수-마리아-요셉을 본받는 소녀(小婢女, 작은 여중)들의 삶을 의미한다.

성가소녀회의 삶, 강생의 역사가 되다!

이 노렌조 오 보니파	이 아시아 정 마리
시오 권 세바스티안 박 짓다 김 골롬바 구 라우데스	안젤라 김 세르반 고 앤데레사 조 소화데레사 김
이 벨라엠티 김 요한 김 막달레나 이 필립보 김 빌라바 최 벨라도 김	노아 김 로사리아 이스페스 김 마리버안네 오성심 김 필리아 이
아벨라의데레사 김 마리보나 김 가타리나 나 열리사벳 이 말세리나 김 요한벨코	페트라 이 인덱마리아 정 요한마타 박 성암마르타 함 아가페 이 에다타 권
안 김 보나벤티라 김 마리오셉 이 가브리엘라 문 요한비안네 윤 프란치스카 김 도니카 유	올리엠티 안 마리벨라엠티 안 아타나시아 김 석문가롤로 박 마리안토니오 갈 리노
로스미스티카 정 다니엘 이 린피타가타리나 진 안젤라 민 도미질라 박 우술라 조 유리안나 김	김 마리버타 남궁 라우렌시오 조 영보마리아 김 은유 유리루나 정 히야친타 오 콜레리아
메히틸다 한 크리스티나 유 모데스	김 예수외데레사 임 안토니오 박 민첸
미니코사비오 송 까리마스 최 그	시아 한 하심바로로 최 마리오달 김 마
아트릭스 전 꼬로나 이 피델리	스태마노 주 윌데가르도 유 열리아
나 서 료렌시아 김 루피나 조	도나도 최 가롤로 보로메오 윤 리
오 민 다미안 이 테오도라 전	셋 김 마리프랜 이 효임골롬바 유
유리아 이 잔다크 조 요셉 김	예수의베로니카 정 대철크드로
손 바울라 김 안드레아 한 세레	드 구 가브리엘 임 풀린 정 물로
엠티 조 오틸리아 노 뢰타 김	다태오 이 프란츠 원 귀일마리아
시아 하로자리오 정 실베스텔	시오 배준홍 조 나자레나 이 마리
에스텔 고 프란치스코 홍 이	도플 안 제네시아 김 사를르드후
로리아 강 테오필리아 신 도로	베드로 이 필로메나 심 마리노 이
데보라 백 남파 한 첸나 김 이사벨	고데오 정 경환프란치스코 김 안
레지나 김 라우라 김 올리바 한 마르티나 전 베리타 김 불림디나 정 안칠라 이	문 토마스오어 신 엘라스 김 디도
메리엔 김 화필리아 박 세시리아 이 에타엔 김 카롤리나 이 프랑소아	김 이고보 도 폴리나 정 마르타 김
이 오베로 정 디오나시오 고 갈리사도 이 테오파노 이레나	베드로 전 분도 정 디에고 이 유정
이 안젤리가 김 마리아 박 알가리다리아아 방 골라라 이 에리나 박 벨	한 김 테니스 박 효혜아 김 이나시
릭스 유 베네딕타 차 클레멘스 문 리나 유 바스칼 이 빌렌티나 오 클라우디아 이 비	베라미 정 안젤로 김 마리젤마 강
오렛 에스콜라스타카 유 토마스 정	안나프란치스카 정 원자베드로 최
모테오 전 스텔라 이 프라스카	김 정의마르코 손 안나린 이 루
드리시오 요한금구 유 데레시	바르바라 이 디스아 이 잔마리 이
시앗다 유 요셉피나 박 알바로	우스티나 이 마리엘라 강 예수의
이 벤자민 우 요세파 전 가벨	노 광 아나벨 윤 마리글라라 김 마
바울리나 이 엘미나 윤 요아킴	효주아네스 이 루미네 이 마르틴
유 미엘 박 마자벨로 고 누갈다	요한 박 종원아오스달 문 치릴로
이 보나크리스타 채 마리벨렌	나 배 이사와 최 보스코 진 사라
정 막시밀리안골베 김 조각리마	어 정 예수가 김 자혜 이 브니엘
레벡카 신 에밀리아 진 마리앙조	리브카 전 마리아솜파 신 마리아
이 레아 조 효주 한 요하네스 김	비 마튜 유휘에 하비에르 이 체칠리아
스 우 스바니아 윤 마리엘 이 카리	이 마리아엘레 박 루디린 이 프리
미카엘 신 로즈마리 김 이가다 이 마리	나 이 나타냐엘 박 나타냐엘 앙 테
마리나 윤 모이세 조 예수의소피아 정 정해엘리사벳 문 마리안드레아 백 열마 김 에즈라 임 리베 박	강 아거스틴 박 마리엘리사 김 요한세레
세라피나 김 아델라 신 마리후앗 박 영주바로로 류 베르뇌시메온 안 주세피나 정 알로이시아	엘 안 에스텔 백 소피아 홍 그라시아 이 바로로 성 테레사 이 사도요한 송 버나델 김 사무엘
김 앙리 임 세실 안 마리야네스 김 효경 신 일미나 전 마가렛 박 클라릿타 김 다	이 기쁨 박 막달레나 홍 파피노 게 베드로 최 바로로 황 예수아 강 한나 전 미리
미아노 김 진이아가다 윤 마리고레미 안 사비울 박 베데스카 진 심포	왕 정 예수의아닐 김 시우알레시오 김 피에타 마임마누엘 홍 파라 전 다
로사 김 라리아드렌 유 시문 김 예수외글라라 이 마	니엘 머 마리아나 리엔 리타 화 마르틴 다오 모세 홍 데레사갈
리루카 이 엘비나	쿠타 톨 마리아고레페 레 마리아 텀 소화데레
	사 톨 소화데레사

여러분도 신문을 통해 읽으셨겠지만,
오는 12월 21일 미국은
우주선에 3인을 태워 발사할 예정인데
그 우주선은 성탄일에 달 주위를 여러 바퀴 돌고
12월 27일에 돌아올 것입니다.
이는 인류 역사에 대 사건으로 남을 것입니다.

- 성령 강림 마지막 주일(1968년 설립자 강론 중에서)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우주 비행사들보다 더 높이 날아 봅시다.
좀 더 사랑하기 위해 하느님을 바라봅시다.

- 삼위일체 대축일(1977년 설립자 강론 중에서)

소비녀들에게

- 006 2023 소비녀들에게
- 007 소비녀들의 80번째 성탄_ 정재덕 신부님
- 008 강생의 소비녀들에게_ 총장 수녀님

설립 80주년 "강생 80"

- 010 응답하라 1943
- 012 소비녀의 삶, 강생의 역사가 되다
- 018 강생 80과 함께한 특별한 손님들
- 020 설립자의 강생의 길을 따라서
- 022 생태적 상상력으로 경계를 넘어~ 80주년 기념 "비에르 축제"
- 024 강생 80년, 소비녀들의 생명의 그물망 짜기

논단

- 027 성가정, 온 우주를 품다_ 조현철 신부님

우주적 성가정, 강생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다

- 033 성 신부님의 아이들_ 김 양업토마스 소비녀
- 041 세상 속 소비녀들을 찾아서
- 045 그들이 꿈꾸는 새로운 성소, 새로운 공동체
- 053 더 큰 우주적 가정으로의 부르심_ 남상호 스테파노 형제님
- 058 세상 속에서 강생을 살다_ 김영숙 에디나 자매님

강생의 길을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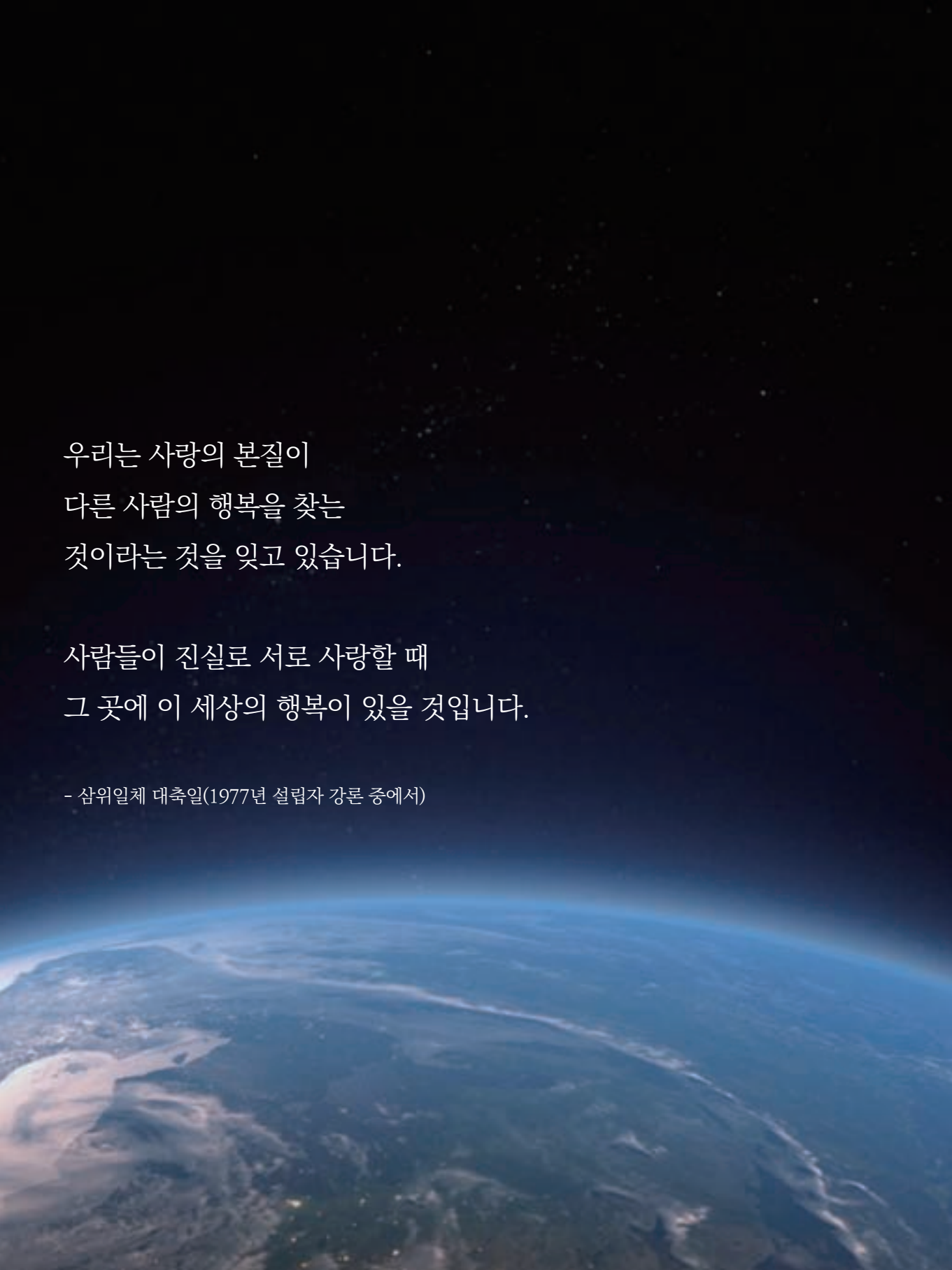
- 067 작은 아마존을 꿈꾸며!_ 이 폴 소비녀
- 074 필리핀 공동체의 강생의 여정_ 이 필로메나 소비녀
- 080 로스안데스에서 온 편지
- 082 남미 선교 공동체 소식
- 083 아시아 선교 공동체 소식

그 작은 길은 세상을 뚫고 하늘에 닿아

- 090 입회, 서약, 은·금경축
- 097 예수마리아요셉회 입회, 첫서약
- 098 별이된 소비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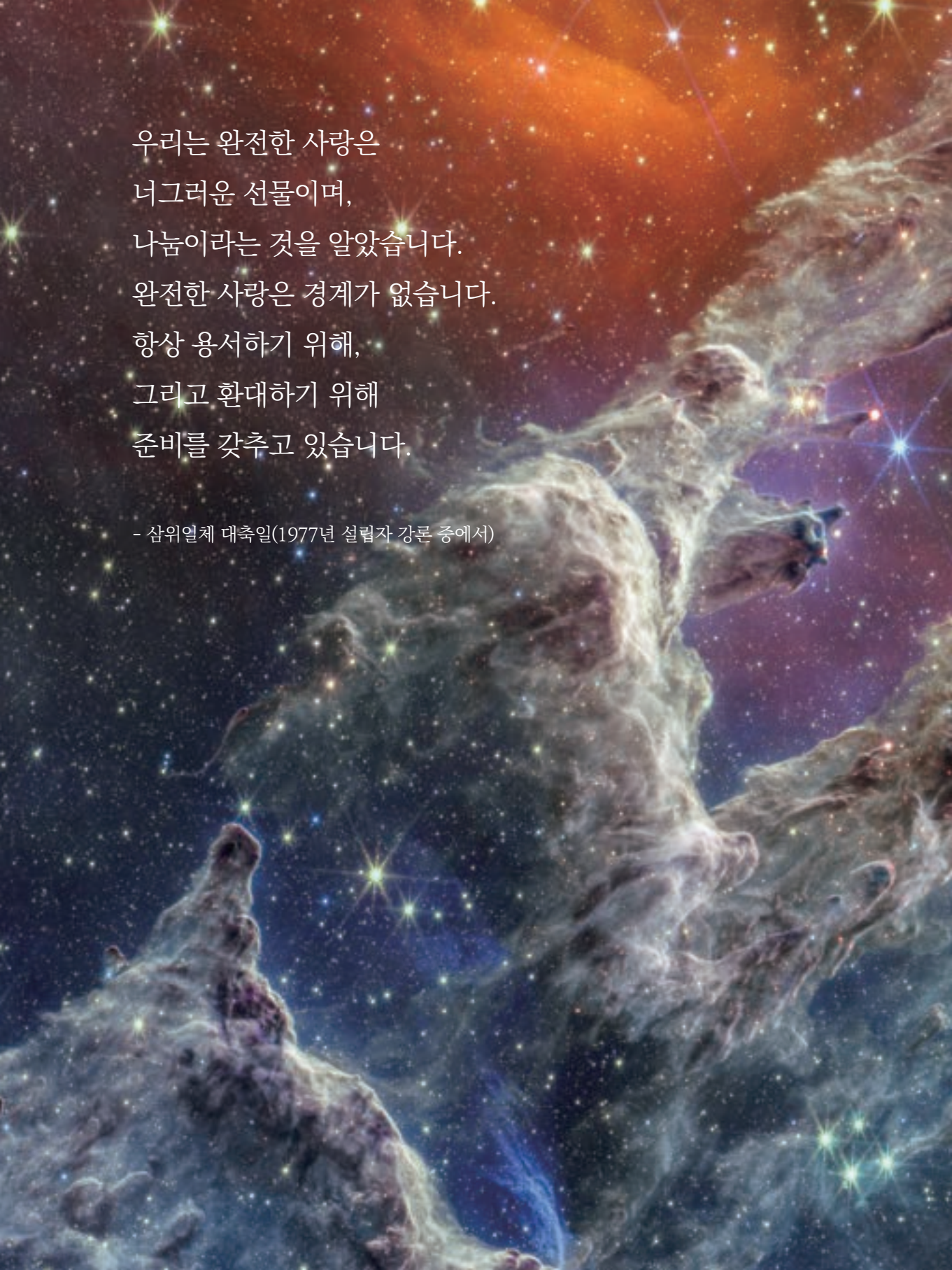
소비녀지는
지구환경을 생각하여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본질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찾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실로 서로 사랑할 때
그 곳에 이 세상의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 삼위일체 대축일(1977년 설립자 강론 중에서)



우리는 완전한 사랑은
너그러운 선물이며,
나눔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경계가 없습니다.
항상 용서하기 위해,
그리고 환대하기 위해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 삼위일체 대축일(1977년 설립자 강론 중에서)

바깥은 불고 싶은대로 불매

소비녀들!
주님의 영이 부는 대로 새로운 복음을 써 가십시오.
창조적이고 담대하며,
반복할 수 없는 삶의 이야기를 써 가십시오.
거룩한 전환의 절박한 필요를 식별하고 응답하십시오.
소비녀다운 결단을 하도록
주님의 영께서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소비녀들의
80번째

성탄

우리들은 예수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아직 양우리 안에 있지 않는
다른 양들의 마음속까지 내리고 싶어하십니다.

불쌍한 사람, 안 믿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마음 속에 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들의 성소, 특히 수도자들의 성소입니다.

우리들은 말과 모범으로 또 애덕 행실로써 사방에 나가서 주님을 위하여 일합니다.

성가 수녀의 성소는 바로 예수처럼 내리는 성소입니다.

예수 성체를 먹는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는 먹게 합시다.

즉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유 등을 그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내리심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지내지 말고,
특히 예수 내리심을 방해하지 마시오.”

1977. 1. 15. 성가정의 벗 제3호 <성탄> 성재덕 신부 글에서..





강생 80년의 소비녀들에게

총장 나 니콜라오 수녀

성가소비녀회가 설립 80주년을 맞았습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전쟁,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이유 없는 폭력들,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기후 위기,
부서지고 상처 난 백성들의 신음이 가득한 세상,
지구 생명에 이토록 긴박한 위기 신호가 울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강생의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절박한 생명의 신호는 언제나 성가소비녀들의 근원을 흔들며 깨웁니다.
전쟁 중에 태어난 수도회, 전쟁의 위험 속에서도
자신의 안위보다는 고통 받는 생명의 현장으로 파견되었던 소비녀들,
위기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덤석 품어 안아왔던 역사가
성가소비녀회 80년 역사입니다.
초창기부터 오늘까지 돌아보면 우리 선배 수녀님들은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겨났을까?

어떻게 그런 담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어쩌면 그리도 지혜롭게 응답하셨을까?

감탄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 힘은 근본적인 것, 핵심을 놓치지 않는 데서 나오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립자가 처음 우리의 기초로 놓아주신 강생의 영성, 소비녀 정신,

하느님 사랑과 가난한 이들을 향한 사랑,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선택하기를 주저하지 않음,

가장 낮은 자리를 기뻐함,

우리의 뗏속 깊이 자리하고 있는 이 정신들이 80년 역사를

면면히 이끌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선배 수녀님들의 용기와 담대함과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전쟁 중에도 고아들을 모두 데리고 피난길에 오르고,

부상당한 군인들을 돌보았던 소비녀들,

전쟁 뒤에 만연한 고통과 빈곤을 품어 안았던 소비녀들,

시대의 요청에 따라 개미처럼 일해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웠던 소비녀들,

시대의 새로운 변화 앞에서 식별하고 전환하고

아낌없이 내어놓고 더 절박한 곳으로 이동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소비녀들!

이 놀랍도록 무모하고 신비한 역사를 이루어낸 소비녀들의 힘을

지금 여기에서 한껏 끌어올려

이 시대의 부서지고 상처 난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

또 다시 무모하고 신비로운 강생의 역사를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수도회 역사 주요 10장면 돌아보기

응답하라 1943



초창기 소비녀들의 빈 손 위에 강생하신 예수님



#1 혜화동 성모 동고상 앞 첫 순명 장면



#2 단칸방 공동체



#6 동자동 미망인 양재소



#7 텐카드 원달러



#3 1964 골롬반회 옷 펴뭉물로 빨래하기 물지게 지기



#4 전쟁 중 고아들과 함께 피난가는 소비녀들



#8 본원 공사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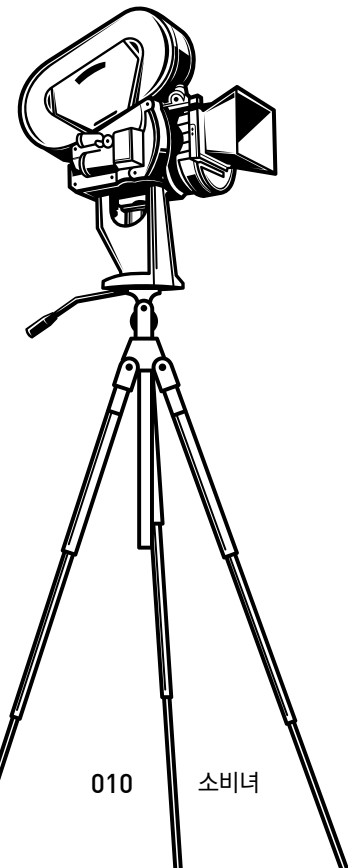
#5 아전병원 부상자들을 간호하는 소비녀



#9 사베리오 수녀님의 가난한 집 방문



#10 안나의집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미사



소비녀의 삶, 강생의 역사가 되다



강생의 얼굴을 찾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소비녀 명작극장
<밤보>의 주역을 만나다



"그땐 정말 그랬지~"
80년의 역사를 되돌아 봅니다.



강생의 길에서
선교사 삐에르를 만나는 기쁨!



지혜세대 소비녀들이 만난
설립자 성 신부님의 모습들

매표소로 변신한
총원 안내실



첫번째 관람팀은
베트남 유기사약자들

설립 80주년 맞이하여 준비한

"강생 80" 초대



“
소비녀의 초대
초창기 삶의 자리, 우리가
입회하여 양성을 받은 자리,
80년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
과 만나는 자리
...”



“
설립자의 초대
설립자의 역사, 정신과 삶을
기억하고 만나는 자리
...”





"여기에 내가 있네!"
강생 80, 여기 나의 삶이 있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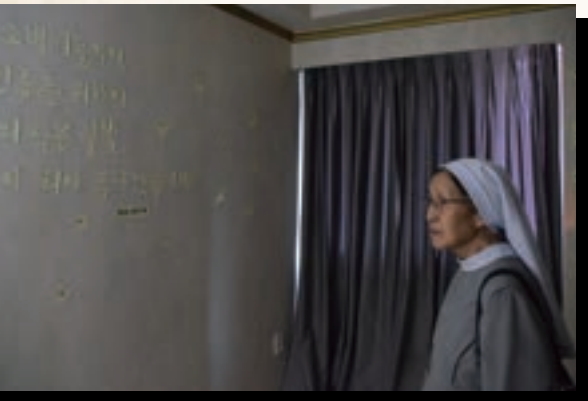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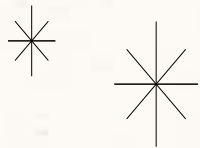
* *
80년 역사 안에 나타난
소비녀들의
강생의 삶을 만나다!



우리는 이런 화관을 쓰고
서원을 했었지요!



신부님! 80년 동안 열심중에 살아온
소비녀 딸들도 한 번 안아주세요~~



소비녀, 별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초창기 소비녀가 되어...



그리운 천상 성가정의
소비녀들도 기억합니다...





● 강생80과 함께한
특별한 손님들

◆ 꽃섬 가족들도 왔어요~



◆ 그 옛날 해화동 시절 함께 했던
그리웠던 동기도 만났어요!



◆ 총원의
관리장님이셨던
박 요아킴 님



◆ 이웃사촌 성가어린이집 가족들과 함께



◆ 소비녀들의
든든한 동반자
예수마리아요셉회



무엇보다 저는 가장 큰 전시실에 있던 점토 인형들과
그 위에 적혀있던 수녀님들의 회고록이
지금도 기억이 날만큼 생생했던 것 같습니다.
수도회의 정신. 또 그것을 살아가는 힘,
매일의 고난 앞에서의 도전, 그 속에 하느님을 만나는
수녀님들과 신부님을 볼 수 있었고 감사함과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소비녀회 수녀님들이 선배
수녀님들의 역사를 얼마나 귀하고 값지게 여기고 자신들의
뿌리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시는지 많이 느꼈습니다.
그 이어져 내려오는 믿음의 힘이 수녀원을
굳게 지켜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독서모임 마리아 자매님



◆ 소비녀들의 길벗,
고 엘리사벳 님

여러 수녀님들께서 누구의 도움이 아닌, 스스로 어려움을
헤쳐 나가시는 모습을 사진으로,
여러 자료를 보면서 알게 되었다는 것에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설립자 성재덕 베드로 신부님께서
우리나라의 어려운 시절에 소비녀회를 설립하셨고,
애쓰셨다는 것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 독서모임 사무엘 형제님



강생 80년전을 다녀와서
...중략...그 중, 자금 마련을 위해 미군복대에서 카드판매를 해야 했었는데,
한국사람 망신시킨다고 상다리를 찼다는 어떤 카투사의 무례한 행동.
얼마나 서러우셨을까?
수녀님들의 헌신에 울컥하였습니다.
..중략..
이번 80주년 전시를 통하여, 수녀님 공동체를 통하여 온 세상에 퍼지는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가올 100년, 주님 은총 속에 건강하세요~
- 50년 전, 가좌동 청년 레지오팀 말따 예지도 레오 드림





설립자의
강생의
길을
따라서



생태적 상상력으로 경계를 넘어~
80주년 기념
"삐에르 축제"



강생 80년, 소비녀들의 생명의 그물망 짜기



참 특별한 지구의 날



새로운 성소
씨앗 키우기



80주년 기념 인권 이야기
생생생(生生生) 릴레이 특강
예수님의 시선으로 생생생
- 예수님과 복음
- 사회와 현장
- 설립자와 활동가
- 소비녀의 시선



80주년 기념 서가



성가요양원
공동체의 공모작품
「강생의 길 80년」



설립 80주년
공모전 참가
"설립자 그리기"



80주년 강생의 부리에
"북주기 축제"



그 사랑의 강을 밖으면 우리에게 양화로다

하느님은 1943년에 창조하신 똑같은 원천에서,
오늘도 내일도 '사랑의 강'이 흐르도록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취약하고 무력한 곳으로
당신 사랑의 강물이 흐르도록,
소비녀들은 이 강물이 흐르는 통로가 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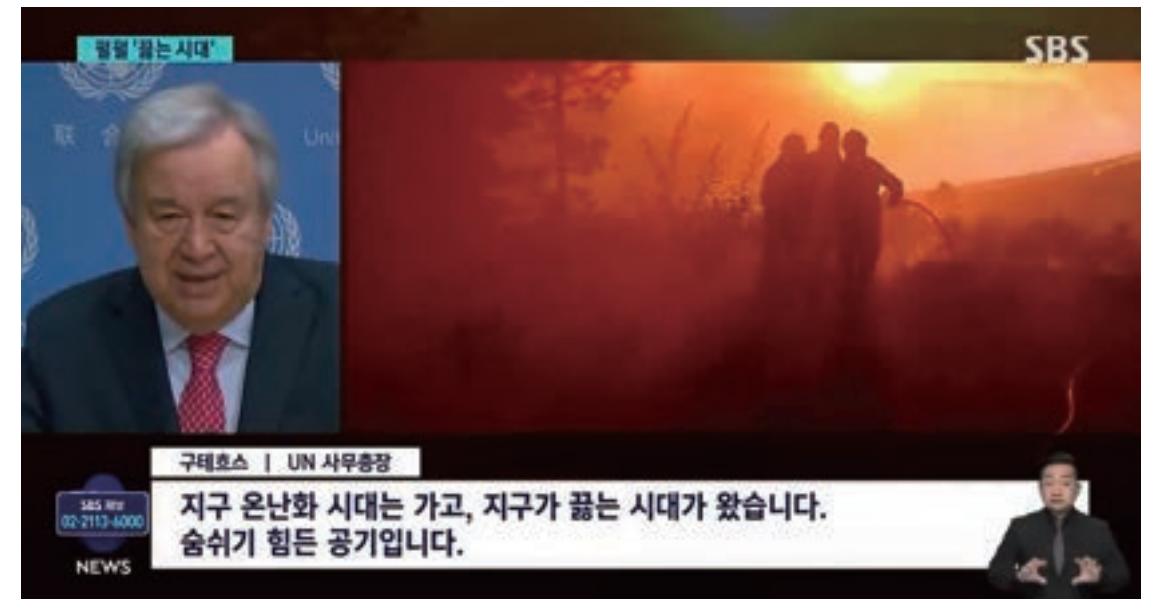


성가정, 온 우주를 품다

조현철 프란치스코 신부·예수회, 서강대 교수

“우리 집이 불타고 있다!”
전 세계가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매년 가뭄과 폭염과 함께 산불이 규모와 횟수에서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2019년 중반부터 2020년 초까지
계속된 대형 산불로 나라 전체의 숲이 14%가량
없어졌습니다. 올해는 캐나다 곳곳에 1천 건에
달하는 산불이 일어났고,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주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을 비롯한
동해안에서, 올해는 서울 인왕산과 충남 홍성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산불의 직접적인 원인은 다양하지만,
지구 가열로 고온 건조해지는 날씨가 산불의
규모와 확산 속도를 키우는 것은 분명합니다.
기후변화와 산불은 '상호 악화' 관계에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산불은 더 커지고 더 강해집니다.
산불로 숲이 타면서 숲에 저장된 탄소가 대기로
방출되고 탄소 흡수 능력이 줄어드니





기후변화가 빨라집니다.

결국, 산불도 기후가 문제입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올해 7월이 역대 가장

더운 달로 기록되리라 전망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 온난화(warming) 시대가 끝나고

지구가 끓는(boiling) 시대가 시작됐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이 내뿜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점점 더 혹독한 상황에서

살아야 하고 기후변화에 책임이 적은

사회적 약자들이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정의와 공정에 어긋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기후재난을 비롯한 각종 생태 위기는 자연을

함부로 다루어 온 인간에 대한 자연의 반격입니다.

자연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인간의 오만방자한

태도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렇게 되기까지

다양한 원인이 있었겠지만, 17세기경 서양에 등장한

‘기계론적 세계관’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계론적 세계관은

인간과 자연을 서로 이질적인 것으로 보았고,

인간과 자연은 결국 분리됐습니다.

자연은 물질로 환원, 균질화됐고 중국에는 물질로 이루어진 거대한 기계로 간주했습니다.

인간과 분리된 자연은 인간의 필요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전락했고, 자연과 분리된 인간은

자연 자체의 존재 이유를 부정했습니다.

자연은 아직 꼴을 갖추지 않은 물질 덩어리로

인간 앞에 놓였습니다. 기계론적 세계관의 필연적인

귀결로 자연에 대한 강력한 ‘인간 중심주의’가

우리 내면에 자리 잡았습니다.

자연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사상적 근거를 얻은

인간에게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의 획득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인간에게 이 힘을 선사한

과학 기술은 진보의 상징, 조건 없는 믿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술로 자연을 마음껏 주무르게 된

인간은 자연에서 “최대한 모든 것을 뽑아내”는데

몰두했고(〈찬미받으소서(이후, LS)〉 106항), 대량

생산과 소비는 일상의 생활양식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이 대규모로 파괴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는 자연에 기대어 사는 모든 것에

돌아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간이 생존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독립된 존재임을 선언하고 절대적 지배자를

자처하면, 인간 삶의 기초가 붕괴”합니다(LS 117항).

바로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체험하는 기후재난을

비롯한 각종 재난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삶의 붕괴’입니다.

지구 가열화는 산업화 이후 인간이 추구해온 삶의

결과입니다. 기후변화는 이 세상이 인간만 사는

곳도 인간만을 위한 곳도 아니라는 경고입니다.

자연의 준엄한 경고를 받아들여 오늘의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의

근본적인 내적 변화가 요구됩니다.

“생태적 회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LS 217항).

생태적 회심이 없다면, 우리는 시대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할 수 없을 겁니다. 어원상 회심(μετάνοια)은 ‘생각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삶이 변화합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바란다면, 사고방식이 우리 행동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LS 215항).

생태적 회심은 기존의 인간관계를 넘어

“생명, 사회,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촉진”하여 세상의 근본적 변화를

이끄는 내적 변화입니다(LS 215항).

생태 위기를 초래한 우리 내면의 태도에 비추어볼 때,

생태적 회심이란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에

떨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인간 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생태 중심, 우주 중심의

시각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생태적 회심으로 받아들인 세계상은 단지 순진한 바람이

아니라 현대 과학이 지지하는 세계의 모습입니다.

20세기 중반 이후 자연과학은 기계론적 세계관과

전혀 다른 세계상을 제시했습니다.

우주는 약 138억 년 전 ‘빅뱅(Big Bang)’이라

부르는 대폭발로 시작했으며 우주 만물은 이후의

수많은 생성과 변화의 과정으로 생겨났고

지금도 생겨나는 중입니다.

약 40억 년 전, 지구 또한 이 과정에서 생겨났습니다.

빅뱅은 만물의 공동 기원이며 모든 것은 서로 존재와

생명 차원의 근원적 유대로 연결됩니다.

현대 과학이 보여주는 세계는 기계가 아니라 모든 것이 근원적 유대로 이어진 공동체, 곧 ‘집’에

가깝습니다.

‘집’을 뜻하는 그리스어 ‘오이코스(oikos)’에서

파생한 ‘에콜로지(ecology)’를 ‘생태(학)’로 옮기니,

세계를 집으로 보는 관점은 생태론적 세계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생태적 회심은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생태론적 세계관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생태적 회심을 했을 때, 세계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공동의 집”이 됩니다(LS 1항). 집 안의 모든 것은

서로 긴밀히 연결됩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의존하는 집에서는

모두 그 자체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유용성보다 존재”가

먼저입니다(LS 69항). 생태적 회심을 했을 때,

네가 안녕하지 않으면 나도 안녕할 수 없다는,

개인의 안녕은 세상의 안녕 없이 불가능하다는

진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기계론적 세계관과 인간 중심주의가 생태 위기의

뿌리의 한 축이라면, 오늘날 교회는 사회적 약자와

함께 말없이 파괴되는 자연에 더욱더 깊은 관심을

쏟고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교회가 지향해 온 친교(koinonía) 공

동체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감싸 안아야

합니다. 특히, 수도공동체는 이 세상에서 “보편적

친교”를 실천하는 전위(avant-garde)가 되어야 합

니다(LS 92항). 수도회는 울부짖는

가난한 이들과 신음하는 지구를 깊은 관심으로

돌봄으로써 보편적 친교를 실천하는

살아 있는 상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모든 수도회의 예언자적 소명입니다. '가정'이 친교의 원초적 장이라면, 성가소비녀회의 영성인 '성가정' 또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품는 '우주적 성가정'으로 확장, 심화해야 할 것입니다.

성가정 영성은 강생의 영성입니다. 성가정이 강생에서 비롯하기에 그렇습니다. 강생 자체가 우주적 사건이기에, 성가정 영성도 우주적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요한 1,14). 하느님이신 말씀이 사람의 육(σάρξ)을 취하신 육화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육화로 우리 가운데 현존하실 뿐 아니라 우리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육화는 인간과 깊이 일치하시려는 하느님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하느님께서서는 육화로 인간뿐 아니라 온 우주와 모든 피조물에 손길을 뻗치십니다. 하느님과 노아의 계약에 나오는 "살덩어리"라는 말에서 보듯이(창세 9장 참조), 구약성서에서 '육/살(σάρξ)'을 뜻하는 바사르(בשר)는 인간뿐 아니라 동물, 더 넓게는 모든 생명체를 지칭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인간의 육을 통한 하느님의 현존과 일치하는 사람을 넘어서 모든 피조물에 미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육신을 통하여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 긴밀하게 결합시켜 주셨습니다"(〈복음의 기쁨〉 215항) 결국, 육화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포함한 "세상(κόσμος)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일어난 것입니다(요한 3,16).

강생은 온 우주를 감싸는 하느님 사랑의 결과입니다. 성가정 영성은 모든 피조물, 특히 가장 곤경에 처한 피조물을 돌보는 삶으로 우리를 재촉합니다.

성가정은 친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천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하고 응답했습니다(루카 1,38). 요셉은 마리아를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마태 1,24). 예수는 나자렛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지냈습니다(루카 2,51). 마리아와 요셉은 모두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는 부모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의 삶에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자기 제한'의 움직임을 공통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친교는 상대를 신뢰하고 존중하기에 자기 뜻을 제한하고 상대를 따름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서로 일치합니다. 성가정의 친교는 '자기 제한'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성가정에 앞서, 하느님의 강생 또한 세상을 사랑하신 하느님의 자기 비움(κένωσις)으로 이루어졌습니다(필리 2,6-7). 자기 비움은 자기 제한의 정점입니다.

생태적 회심은 우리가 협소한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 세상을 보편적 친교가 넘치는 '집'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하느님은 세상이 모든 것이 "서로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보편 가정", 우주적 성가정이 되길 바라십니다(LS 89항), 그러나 현실 세계는 정반대의 힘이 작동합니다. 자기 제한으로

서로 일치하고 포용하기는 커녕, 배타적인 자기 확장의 거대한 힘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자연을 수탈하고 이웃을 착취하는 힘의 배경에 기계론적 세계관과 인간 중심주의가 파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 확장의 힘이 거세다 해도,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에게는 "자신을 벗어나 타자를 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LS 208항). 바로 절제와 환대의 능력입니다. 인간에게는 "탈아(ἐκστασις)의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모든 형제들〉 88항). 바로 예수와 마리아와 요셉의 성가정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주적 성가정의 보편적 친교는 일상에서 자기 절제와 타자의 환대로 나타납니다. 절제는 단순과 검약의 삶으로써 삶에 필요한 것을 함께 나누게 합니다. 절제가 있어야 환대도 가능합니다. '육/살'을 지닌 생명체가 살려면 세상에서 자기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환대는 세상에서 자기 자리가 없는 존재에게 내 자리를 내어주는 자기 제한의 행위, 살림의 행위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이미 부모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부모의 환대가 없이는 누구도 세상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타인을 환대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 절제와 환대는 우리가 하느님의 창조에 참여 하는 행위, 피조물이 번성하라는 하느님의 축복에 응답하는 행위입니다(창세 1장 참조).

안식일은 일상에서 절제와 환대를 실천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성서의 전통입니다. 어원상 '안식(שבת)'은 '멈춘다'는 뜻이므로

안식일은 무엇인가를 더 할 수 있지만 스스로 멈추는 '자기 제한의 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인 이렛날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일을 멈추고 옛세 동안의 삶을 성찰하는 때입니다. 성서의 안식은 "관상하는 안식"입니다(LS 237항). 이렛날에 스스로 일을 멈추고, 안식일을 준수할 때 우리는 함께 사는 존재들, 특히 사회적 약자와 다른 피조물들을 눈여겨보며 돌볼 수 있습니다(탈출 20,8-11; 신명 5,12-15 참조). 자기 제한의 안식일 정신을 확장하는 안식년과 희년은 빛의 '탕감'으로 사람을 해방하고 '휴경'으로 안식일의 관심과 돌봄을 땅에도 적용하라고 요청합니다.

결국,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은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서 땅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과 친교를 실천하라고 촉구합니다. 안식일 정신을 실천할 때, 우리는 보편적 친교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성가정을 온 세상으로 조금씩 더 넓혀 가는 겁니다.

올해 설립 80주년을 맞는 성가소비녀회에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설립 초창기도 일제 강점과 한국전쟁 등으로 매우 어려웠지만, 지금은 인류의 터전 자체가 인류에 의해 위협받는 모순적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성가소비녀회의 모든 수녀님이 안식일 정신으로 강생의 영성, 성가정 영성을 더욱 더 깊이 사시길 바랍니다. 뜨거운 연대와 힘찬 참여로 더욱더 세상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정의와 평화를 향한 희망의 샘은 결코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주적 성가정, 강생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다

세상 속의 강생을 살아가며
우리의 성가정을 수도회 울타리를 넘어
더 넓은 세상, 더 큰 우주로 확장시켜주는
강생의 형제 자매들

설립자 성 신부님의 사랑을 받았던 옛 논산 아이들
퇴회해서도 강생의 발걸음을 이어갔던 소비녀들
세상 속에서 새로운 성소의 길을 찾고 있는 평신도들
강생의 동반자들인 예수마리아요셉회 회원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봅니다.

성 신부님의 아이들

“나의 아이들을 참으로 초성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대담·정리 김 양업토마스 소비녀

성 신부님과 직접 만나지 못한 후손들까지도 ‘아! 논산!’ 이라고 외치며, 성 신부님이 혼신을 다해 사랑했던 사목지를 기억하고 있지요. ‘논산, 어린이’ 이 둘은 성 신부님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거의 빠짐없이 언급됩니다. 대체 거기서, 그들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성 신부님이 ‘나의 아이들’이라 하시면서, 참으로 초성적인 사랑으로 사랑했던 그 어린이들은 어떤 기억을 품고, 어떤 유산을 간직하고 이어왔을까요? 이제는 황혼기에 접어든 성 신부님의 아이들이 돌아보는 ‘사랑받은 기억, 신앙의 유산’을 따스하게 전해 받고 여기 함께 나눕니다.



김
중
서
요
셉
님



김중서 요셉님은 성 김대건 신부님 후손으로 성 신부님의 논산 성당 재임 기간 내내 본당 회장을 하셨던 김현룡 마티아 님의 손자이다. 다섯 살부터 성 신부님 미사 복사를 하며 성 신부님에 대한 수많은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 신부님의 영향으로 신학교에 들어갔고, “우리 요시비”를 무척 아끼셨던 성 신부님이 프랑스 유학을 계획하실 만큼 기대가 크셨다고 한다. 신학교에서 나온 후에도 론배 미사와 자녀의 유아세례를 주례해 주시며 끝까지 마음으로 품으셨던 성 신부님의 아이였다.

어린이 사랑 # 늘 곁에 # 내어줌

다섯 살부터 성 신부님 옆에서 복사를 썼어요. 복음 봉독 전에 미사 경분을 옮겨놓곤 하는데, 계단을 올라 가려니 너무 무거워서 냅다 집어던진 적이 있습니다. 성 신부님께서서는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제가 복사를 설 때는 신부님이 대신 옮겨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일등으로 성사 보려고 고해성사 줄을 서러 갔는데, 제가 두 번째 차례인 거예요. 심술이 나서, 앞에 온 친구 바지를 벗기고는 성사 보러 들어갔다가 신부님께 야단을 맞았네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참 많아요. 성 신부님께서 그저 아이들을 ‘좋아하셨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걸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을 좋아하는 게

것도 어린이에 대한 사랑이 바탕이 되었다고 봅니다. 어린이 미사 때에 실제로 합송미사를 했었는데, 노래가 신나서 장난하고 놀 겨를이 없었어요. 판 짓할 시간이 없죠. 계속 노래가 이어지니까요.

아들 신학생 # 내 아들 # 기대 # 양성

소신학교, 대신학교 다닐 때도 아버지 성 신부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시다. 큰 축일에는 미사 끝나고 신학생들을 사제관에 데려가 우유를 한 잔씩 주셨어요. 구호품으로 나온 옥수수 가루를 부쳐 먹기도 했습시다. 성 신부님께서 옛날 해화동 성가수녀원에 오시게 되면, 신학교에 들르셨어요. 소신학교 6년 동안 두 번 오셨는데요. 딱 그 두 번이 하필 제가 벌을 설 때였지 뭐니까. 그때 한창 오르간을 배울 때였거든요. 쉬는 시간 10분 동안 틈을 내어 오르간을 치러 갔다가, 종치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라틴어를 가르치던 허창덕 신부님이 아주 엄하셨는데, 그분이 제 목덜미를 잡아서 끌고 가셨죠. 교장 신부님 사무실 앞에 무릎을 꿇고 있으라고 벌을 세워놓고는 가버리셨어요. 성 신부님이 신학교에 오시면 꼭 교장실에 가셨었는데, 그때 벌을 서고 있는 저를 보시고 교장 신부님께 ‘우리 요시비(요셉이) 왜 저러고 있냐?’고 물으셨어요. 하필 두 번 다 제가 교장실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신 거죠. 방학 품행기록을 작성할 때 성 신부님께서 다른 항목들을 다 좋게 적어주시고는, ‘성덕’에 대해 쓸 때만큼은 ‘양심대로 써야지요!’ 하셨어요. 성적표를 받아오면 신부님께서 20세기에는 수학, 과학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던 기억도 나네요. 소신학교 시절인 중1, 2학년쯤이었나, 프랑스

고고학자가 논산에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은진미륵을 보러 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신부님께서 저를 불러서 그분을 안내하라고 했어요. 은진미륵을 구경시키고 그 앞에서 기념품 계산하는 것도 도와주었습니다. 당시에 외국인을 만나서 영어를 한다거나 안내할 기회가 흔하지 않았는데, 신부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를 체험하게 하고 다양한 기회를 갖게 하려던 뜻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신부님의 양성 방법이었는데도 모르겠네요. 저를 부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 누구의 아들 아무개’ 하듯이 ‘장배 새끼 요시비, 요시비’ 하고 부르시기도 했습시다. 아들 신학생이었던 저를 위해서 프랑스 유학 준비를 하고 오셨는지, 현지에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데, 본국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셨을 때 제가 신학교에서 나온 것을 아시고는 몹시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저 ‘요시비, 요시비...’ 하시면서 이름만 부를 뿐, 말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부님께서 저를 야단친 기억이 없는데도 왜 어려워하고 무서워했는지 모르겠네요. 신학생이라서 그랬는지, 내 속이 다 보일까 두려웠던 건지, 제게 거시는 기대가 크시다는 것을 알아서 그랬는지...

유머 # 웃음을 주는 틈새 # 여유

하지만 신부님은 정말 유머가 많으시고 위트 있는 분이셨어요. 사랑이 많으신 거야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어느 날엔가 방에서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이것저것 손을 대니까, 만지면 안 될 물건들이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신부님께서 면박을 주지 않으시고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언어가 서툴러서가 아니라 아주 재치 있는 명언입니다.

“손으로 보고, 눈으로 만지세요.”

성인 사제 # 인간적인 # 따스함

우리 집과 성당 정문이 붙어있었는데, 성당을 지으면서 바로 건너편에 집을 지었습니다. 늘 성당 가까이 살았지요. 조부(김현룡 마티아)께서 성 신부님 재임시절 내내 본당 사목회장을 하셨습니다. 생전에 인터뷰하실 기회가 있었다면 더 생생하고 중요한 기억들을 나누어 주셨을 텐데요. 성 신부님은 성인 신부님이시라고 늘 듣고 살았습니다. 저는 성 신부님과 조부님, 딱 이 두 분만 무서워했지, 그 외에는 세상 살면서 무서운 사람이 없었어요. 성 신부님이 할아버지 댁에 오시는 날은, 쌀밥을 먹는,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신부님께 고봉밥을 차려 드리면, 위에만 굽어서 드셨어요. 한 공기를 그대로 남기신 거죠. 그러면 그게 저희에게 오는데, 그렇게 맛을 수가 없어요. 성 신부님이 계실 때, 우리 본당이 신앙적으로 가장 활발했던 시절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신자들의 삶과 신앙에 큰 영향을 남기셨죠. 신부님께서 논산 훈련소 물자리를 찾아주셨었지요.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기가 막히게 찾아내셨습니다. 저도 그걸 배우기는 했는데, 따라 하기가 쉽지 않더군요. 신부님께서 프랑스 국가 ‘라 마르세예즈 (La Marseillaise)’도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도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신부님을 따라서 연무대 땅을 보러 갔던 것도 생각나네요. 마산성당(현 연무성당)을 지을 터를 보러 가시는 것이었어요. 시뻘건 땅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성당으로 썼던 그 건물은 현재 사제관 건물이 되어있더군요.



성 신부님과 조부 김현룡 남

훗날 제 혼인성사 주례도 신부님께서 맡아주셨고, 신부님께서 성가소비녀회로 가셨을 때, 신부님 사제관에서 제 아이 유아세례를 집전해 주셨습니다. 제가 캐나다로 이민을 갈 때는 성 신부님께서 영문으로 편지 한 장을 써서 쥐여 주셨어요. ‘캐나다의 신부님들과 형제님들께...’로 시작되는 그 편지에는 제가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집안으로, 순교자의 후손이라는 말씀과 더불어 잘 도와주기를 부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먼 곳에서 고생할까 마음 쓰시면서, 낯선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챙겨주신 것이죠. 편지 한 장과 5달러를 챙겨 주셨는데, 금액으로만 따지면 당시에도 그렇게 큰돈은 아니었지요. 소박하지만 무엇이랄도 해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너무나 큰 감동이었습니다.

가난한 삶 # 가난한 이에 대한 사랑

다 헤어진 신부님의 망토가 생각납니다. 불도 안 때고 사셨어요. 참 가난하게 사셨지요. 당신 자신은 그렇게 검소하게, 몹시 가난하게 지내시면서도 다른 이들의 가난에 그냥 계시지를 못하셨던 것 같아요. 아침 6시 미사가 끝나면 어김없이 마을을 한 바퀴 도셨어요. 성당 바로 옆, 지금 주민 센터가 있는 언덕에 거적때기를 치고, 굴을 파고 사는 이들이 많았거든요. 거지들도 많았지요. 미사 후에 꼭 한 번씩 돌면서 그들을 살피곤 하셨어요. 그러다가 쌀 떨어진 집, 아픈 사람을 보면 본당 회장이었던 제 할아버지한테 알려서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따라다닌 기억이 있어요.

홍산으로 떠나실 때는 제가 신학교에서 나온 후였는데, 신부님의 가방을 들어 드리면서 함께 따라갔었어요. 지금 홍산 성당 자리가 아니라, 사무실과 건물 하나 있는 자리가 홍산 사제관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시장 한복판을 지나 성당에 도착하니, 초가집처럼 매우 허름한 집이었어요. 가방 두 개였나? 떠나실 때 전 재산이 그것뿐이었죠.

정호기 마티아님



정호기 마티아님은 성 신부님의 복사이셨던 아버지로 인해 집 마당이 그대로 성당 마당이었고, 성당을 집처럼 여기며 성장했다고 한다. 성 신부님에 대한 기억도 아주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였다. 꼼꼼하고 성실한 복사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성 신부님이 남기신 자료나 서한 등을 아버지의 대를 이어 소중히 보관해왔기에 논산 부창동 성당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부창동 성당 100년사 편집위원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우리 수녀원에서 만든 엽서 속에 성 신부님과 함께 사진을 찍은 두 어린이 중 한 명으로 소비녀들에게도 낯익은 영원한 성 신부님의 아이이다.

복사 # 사목활동의 협력자 # 역사 자료의 보물창고

제 아버지께서 성 신부님의 복사였습니다. 당시 복사는 미사복사가 아니라, 지금의 사무장과도 조금 비슷할 수 있는데, 공소방문에 동행하거나 사목활동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개인 비서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미사 준비도 하고, 오늘날 본당의 사무장, 관리장 역할도 복합적으로 다 했지요. 저희 아버지도 성 신부님으로부터 물자리 찾는 법을 배우셨어요.

신부님 왼쪽 팔에 안긴 어린이가 정호기님



월요일마다 신부님께서는 자전거를 타고 강경에 가셨었죠. 고해성사도 보시고 동료 선교사 신부님들과 시간을 보내셨어요. 신부님께서 떠나시고 나서 그 자전거를 제가 타고 다니기도 했지요. 집에 오랫동안 보관해 오다가 수녀원 역사전시실로 인계했습니다. 성전 건축 과정에서의 여러 자료도 집에 보관되어 왔는데 그것을 내포 교회사 연구소로 인계했어요. 성 신부님이 남겨주고 가신 설계도나 서한 등을 아버지께서 함을 마련해서 보관하셨는데, 이사 다니면서도 제가 늘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그 자료들 덕분에 본당의 건축사적인 의미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지요.

아버지 말씀으로는, 성전 건축 당시 성 신부님께서 유럽 성당들처럼, 종각 밑에 안치실을 만들려고 구상하셨대요. 결국 뜻을 이루지는 못하셨지만요. 수녀원에서 만든 엽서 중에 성 신부님이 어린아이들과 찍은 사진을 수녀님들이 다들 보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사진 속 어린이가 바로 접니다.

당시에 아버지께서 카메라를 가지고 계셨었거든요. 수동 사진으로 촬영하신 겁니다. 저는 어린 시절 고3 때까지 내내 복사를 썼는데요, 복사를 자주 서다 보니까, 복사를 안 하고 그냥 미사에 참례하면 뭔가 남의 집에 와 있는 듯이 어색할 정도였습니다.

김정숙 벨라렛다님



김정숙 벨라렛다님은 외삼촌이 성 신부님의 복사이셨고, 정호기 마티아 님과는 이종 사촌 형제이다. 성 신부님이 복사의 가족사진을 소장하실 정도로 각별했기에, 사촌 형제들과 어울리며 어릴 때부터 보아온 성 신부님에 대한 많은 추억들, 신부님이 만드신 어린이 미사책으로 미사를 했던 기억, 교리시간에 환등과 그림 과도를 보여주셨던 기억들을 자랑스럽게 간직하고 있는 성 신부님의 아이였다. 평생 공직에 몸담아 왔고, 현재는 부창동 성당 100년사 편집위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움막집 #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 사람들의 필요에 응답

성당 주변에 움막집이 많았어요. 아침마다 거길 다 다니시면서 어려운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챙기셨어요.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사실 신부님이 대신 하신 거죠. 신부님을 성인 반열에 올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얼굴과 이름을 다 기억하면서 저마다의 사정을 다 헤아려 도와주셨어요. 어릴 때 시약소에 약을 타러 갔던 것이 생각나네요. 산토니이라는 구충제를 받아온 기억도 나요. 신앙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직접 연관된 것들을 다 돌보셨어요. 구호품을 나누어 주고 나서도, 형편이 더 어려운 이를 저녁에 따로 불러 필요한 것을 챙겨주시곤 했어요. 제가 한 3학년쯤 되었을 땐가? 프랑스에 가서 치료받으시고 본당에 다시 오셔서 얼마 안 되어 홍산으로 가셨지요. 프랑스에서 한참 만에 오셨을 때, 도로에 줄을 서다

시피 모여온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면서 이름을 불러 인사하셨어요. 애 어른 할 것 없이 다 기억하셨어요.

교리교육 # 새로움에 열린 # 복음의 창의성

교리 때마다 환등도 보여주시고, 그림 궤도를 보여주시면서 실감 나게 이야기해 주신 것이 생각납니다. 바로 사도가 말에서 떨어지는 장면, 회심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보면서 생생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성당에 가면 무언가 새로운 문물이 있으니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TV가 없던 시절이니, 성당에서 환등을 보여줄 때 친구들을 데려가곤 했지요. 성당 마당에 아이들이 바글바글했답니다. 연필깎이도 주셨는데, 나무가 돌돌 말리면서 예쁘게 깎여 나오는데 학교에 가져가면 다른 아이들이 아주 신기했지요. 전국 최초라고 하는 어린이 미사책(합송미사)을 가지고 미사를 드렸어요. 겉표지가 약간 갈색인 책자와 조금 더 큰 성가책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개를 어린이 자리에 놓고, 그걸 보며 미사를 드렸어요. 라틴어 성가보다는 우리말로 된 성가를 많이 불렀어요. 다른 지역 어린이들은 라틴어로만 노래하고 미사 드렸다는 기억이 더 많더라고요. 우리는 지금도 남아있는 '주 앞에 죄를 범하였으니~와 같은 성가를 먼저 부르고 있었지요.

지역과 가족의 정성이 모두 담긴 성전 # 함께 일군 공동체

성 신부님 본가에서 받은 유산이라든가 고향마을에서 도와준 것들로 성당을 짓는 데에 보탬다는 것을 어느 기록에서 본 것 같네요. 한 가족의 정성이 성당에 다 녹아있는 거죠. 본당 신축 예산이 늘 부족하니 본당 신자들도 모두 한마음이 되어 손을 보탰어요. 아버지들이 지계에 돌을 나르시면, 어린이였던 우리도 어머니를 따라서 치마 앞자락에 돌을 담아 날랐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을 다 쓰기에는 공사비가 늘 턱없이 부족하니 미사 끝나면 신자들이 최대한 무엇이라도 했어요.

성 신부님이 전쟁 후에 신자들의 영신사정과 삶의 문제들도 챙기시라 본당 지으시라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돈 걱정이 늘 따라다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일을 하셨는지 몰라요. 부창동 본당에 역사관을 준비하면서 성 신부님의 서한을 바탕으로 음성을 입혀 동영상으로 만들었는데 감동이 큼니다. 돈을 끌어오는 대로 하나 해결하고, 하나 마무리하고, 그렇게 애쓰셨지요. 성전 신축과 축성식을 하고, 마당이나 공사 마무리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은 채로 성 신부님은 떠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담벼락이라든가 성당 앞에 더 손을 보아야 하는 것은 이후에 마무리하고 사진을 찍어서 성 신부님께도 보내드



정복사 가족사진, 할머니 품에 안긴 아기가 김정숙님

렸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지구와 성당의 역할을 당시 논산본당이 했던 것 같아요. 강경 본당을 지을 때 연로하셨던 목 신부님을 대신해서 여러 나라에 원조요청을 하시고, 논산 본당 당시에 금사리 본당을 겸임하면서 규암에 본당 내는 준비도 신경을 쓰신 것을 보면, 지구장의 역할을 크게 하신 게 아닌가 합니다. 그렇게 원조받아서 대건학교 아이들은 현미경이나 과학 키트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하시지요. 전쟁 직후인 그 당시에!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사목하셨는지 좀 울컥하기까지 합니다. 논산 본당의 역사라든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자료들이 논산시 학예사가 보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귀한 자료들이네요. 종일 격무에 시달리셨을 텐데 어떻게 이런 자료를 꼼꼼하게 남겨놓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 청소년들도 이 역사를 알아야 할 것 같아요.

"프랑스 여기저기에서 나보고 오라고 하는데, 나는 가지 않겠다고 했다. 물론 내게는 이곳에 아주 흥미로운 일들도 많고 수백 명의 착한 아이들이 내 곁에 있어서이기도 하다... 내가 나의 교우들과 나의 아이들을 함으로 초성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다오."

[성 신부님께서 여동생에게 쓰신 편지 중에서]

수녀원 지도사제로 돌아오셔서 '매일 식사를 할 때면 언제나 열 명에서 스무 명에 이르는 아이들이 내 식탁을 둘러싸고 나를 바라보며 재잘거리곤 했는데...'하시면서 선교지 현장에서 함께했던 아이들을 그리워하신 신부님. 그렇게 사랑했면서도, 계속해서 더더욱 '참으로 초성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하셨던 분. 성인 사제로 기억되는 성 신부님의 삶은 위대한 업적이나 영웅적인 행적 때문이 아니라, 참으로 인간적이고, 양 념새가 나는 목자였기 때문이었던 것은 아닐까요? 너무나 인간적이었던 그 사랑이야말로 참으로 초성적인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삶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얼굴과 이름으로 만나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그저 스쳐지나가게 두지 않았던 따스한 아버지. 사랑받았다고 느낀 아이들, 존중받고 특별하게 여겨졌던 체험은 그 아이들의 신앙 여정 또한 내어주는 사랑으로 흐르게 했습니다. 아버지를 펍 닮은 황혼의 '아이들'이 지닌 미소와 신앙과 환대가 내내 따스하고 푸근하게 남아 있습니다. "성 신부님, 우리도 계속해서 초성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전구 해주소서."

가난한 이들에게 가시오!

모든 피조물의 아픔과 고통의
현장의 최전선에 서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1선이 어디인지
늘 식별하십시오.

가난한 이들을 찾아
나아가십시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십시오.



세상 속 소비녀들을 찾아서

수도자와 소비녀, 수도자라는
직분을 내려놓고 선택한 소비녀의 길
소비녀 영성을 살아간
세상 속 소비녀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2009년 4월 30일
종원 성 신부님 흉상 앞에서



“그와 가까이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형제를 사랑하는”

〈모든 형제들〉 1항 중에서...

이금녀 요셉(구두라) 소비녀(1회)

“평생 소비녀로 살았어요.”라고 고백했던
세상 속 초창기 소비녀
입회 1944. 4. 12. 퇴회 1947. 9. 1.

“나와서 지금까지 나는 소비녀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성 신부님이 수녀원에 살지 않아도
소비녀라는 것 잊지 말라고 하셨어요.

나와서도 10여 년간 성 신부님 일을 도왔어요.
신부님이 다니시는 곳은 다 따라다녔고,
6·25 전쟁에 부산에 피난 다녀오셔서
전부 다 없어지고 아무 것도 없을 때
신부님은 나부터 불렀어요. 당신 식복사 해달라고,
복사를 3번이나 보내셨는데 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내가 홀어머니를 모셔야 했거든요.
그러니 그 노인을 모시고 신부님께 간다는 게
어려워서 그랬는데 신부님이 너무 섭섭해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사랑해주시고
어려운 일 있으면 나를 불러냈어요.
논산에서 레지오 처음 시작했을 때도 나 불러서 조를
짜라고 했는데 그렇게 레지오를 시작한 것이 50년이예요.
..... 중략.....
내가 성가회 사람이라는 거, 소비녀라는 거 평생
잊은 적 없고, 성가회 소식 들으면 반갑고 그랬어요.
신문에서 성가병원 내놓은 것도 보고 기도했어요.”

『초창기 소비녀들의 이야기』 이 구두라 소비녀 회고 중에서...

백석리공소의 시작은 1951년 하영화 시몬의 집에서
 논산성당 성재덕(Pierre Singer) 신부의
 판공이 시작되면서 공소가 설립됩니다.
 이 구두라 소비녀는 수도회를 떠난 후에도 줄곧 논산에서
 사목하시던 성 신부님의 사목의 든든한 협력자가 되셨지요.
 성 신부님을 도와 현 백석공소의 기반을 놓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때 나의 신심에 많은 도움을 주셨던 한 분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
 중략... 같은 군 부적면 마구평리 돌뫼부락의 공소에
 동정녀이신 구두라씨께서 거리는 10km도 더 되고
 면계가 다른 우리 집을 묻고 물어서 찾아오셨는데
 목적인즉 요즘 말하는 예비자 방문이셨다.
 현재와 같이 교통이 원활한 때라면 몰라도
 험준한 산 움푹짐푹한 내 편협한 오솔길을 오르고 건너고
 때로는 맨발을 벗어가며 가지각색 불편을 감수하시면서
 나처럼 영세자도 아닌 예비자
 그리고 어른도 아닌 어린소년을 찾아주신
 그 크신 고마움을 무엇으로 갚아야만 보상이 가능하다 하겠는가?
 동정녀 구두라 씨에 출천지신심은
 유한한 인간의 두뇌로써는 계량이 불가능한
 도무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마치 날개 없는 천사로 지칭해야만
 거의 옳은 표현이 될 것 같은 훌륭한 성자이셨다.
 한번 노정을 알아두신 구두라 씨께서는
 비교적 자주 우리 집을 찾아오셔서
 나와 나의 어머님과 할머니에게 교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요령을 지도해 주시는 바람에 확실한 기억은 아니지만
 1952년에 나와 어머님과 할머니은
 영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하영호 시몬의 <백석 강당 약사> (1951~2001) 중에서..



백석공소의 현재 모습



공소에 핀 가을 꽃들

김유선 빅토리아(테레사) 소비녀(33회)

수도회 밖에서도 세상의 가장 작은 이들과 함께한 소비녀

입회 1963. 5. 5 퇴회 1997. 8. 26

“총원장 수녀님께서 이는 우리 수도회 정신에 맞는 가장 적절한 곳이라
 생각하시고(희망의집에) 수녀들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셨다.
 이에 많은 회원이 정말 성가회 수녀답게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모든 면에
 제일 부족한 점이 많은 내가 선택되었다는 사실에 나는 눈물이 나도록 기뻐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현장답사를 가보니 말이 집이지 움막과 같았고,
 환자들의 핏기없는 얼굴, 움푹 들어간 초점없는 눈, 실새없이 헐떡이며
 콧룩이는 기침소리, 마치 산 송장들 같았다.
 그곳을 다녀온 나는 두려웠고, 그들과 함께 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 호된 꾸중을 듣게 되었다. “너는 지금 착각 속에 살고 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라. 너는 너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네가 결핵환자보다 더 나은 점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건강한 것뿐이다.
 네 자신이 무엇을 한다는 생각을 버려라.” 하시는 것이 아닌가 “주여!” 주님께서서
 부르시는 곳에 필요한 도구로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나이다.”

(창립40주년 기념특집 <성가의 빛> 제10호, 김 빅토리아 소비녀의 글 '희망의집 발자취'중에서...)



故 김수환 추기경님이 희망의 집에 오신
 1982년 5월 어느 날



다리가 놓이기 전, 희망의 집 초창기 시절
 1983년 10월 어느 날

울타리를 떠나 울타리가 되어준다!

“급한 일이 생겨도 내 것이 없어 줄 수 없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자유로운 몸이 되면 구걸을 해서라도 줄 수 있잖아요.”
 수녀원 안에서 그는 보육원과 양로원에서 병원비가 없어 퇴원을 못하고,
 등록금이 없어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이 늘 마음에 걸렸다.
 그들의 울타리가 돼주고 싶었다. 그래서 그가 울타리가 돼준 보육원 아이들과
 출소자들은 신탄리 안나의집을 친정집처럼 여겼다. 결혼할 때 배우자를
 데려와 김치찌개를 끓여 달라하기도 하고, 자식에게 할머니라고도 소개한다.
 집에 오자마자 쌀통부터 열어보고 김치도 담귀놓는 아이들은
 그에게 자식과 다름없다.
 죽어서도 갈 곳 없는 할머니들을 위해 서울 종로성당에서 관리하는
 납골당 28기를 분양받아 마련했다.
 (평화신문 2010.10.12. 일자 기사 참조)



신탄리 안나의집
 김유선 데레사 원장님의 생전 모습,
 평화신문 2006.08.30.일자
 기사에서 발췌

김 빅토리아 소비녀는 1989년부터 세상을 떠날때까지
 30여 평 신탄리 안나의 집에서 오갈데 없는 할머니 다섯 분과
 지적 장애인 한 명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 등록을 하지 않아 정부 지원금도 없었는데,
 직접 재배한 콩과 고추, 할머니들과 함께
 쪄낸 메주를 팔아 생활했다고 합니다.
 1981년 성가소비녀회와 함께했던 그 시절부터 출소자들 재활 자금을
 마련하려고 만들기 시작한 묵주를 틈틈이 만들어서 팔면서 말이죠.
 사람들은 그를 "수녀님"이라고 불렀는데, 비록 수도복은 벗었지만
 수녀로서 살아가려고 했다는 반증이지 않을까요?
 소외된 이웃을 좀 더 가까이 돕고 싶어 수도회라는 울타리를 떠났지만,
 프란치스코 재속3회에서 종신서원을 하는 등 신앙생활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소비녀로서 살아갔던 것은 아닐까요?

그들이 꿈꾸는 새로운 성소, 새로운 공동체

2023년 3월 25일, 수녀원에 봄기운 가득 품은 손님들이 왔습니다.
 새로운 성소 연구 모임에서 초대하신 평신도들입니다.

조영지 루시아 자매(꽃숨 회원, 교사),
 김수나 발렌티나 자매(농정신문 기자),
 박진균 안드레아 형제(의정부교구 정평위사무국장),
 이원길 요한보스코 형제(살레시안, 직장인),

이 네분과 나는 새로운 성소에 대한 이야기들이 귀하고 빛나서,
 교회와 수도회에 선물 같아서 여기 담았습니다.



김수나 발렌티나 자매님

—— 저는 요즘 성당에 잘 안 나가고 있어요. 제가 구역반장인데요. 반장이 해야 하는 일은 정말 그냥 심부름이예요. 성사표 같은 것이 나오면 갖다 주고, 어디 가보라고 하면 한번 가보고 그런 건데 자율적이거나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면 고생했다고 칭찬은 듣죠. 그런데 제가 그 일을 통해 얻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 의미가 없고 그냥 일꾼인 거예요. 교회는 저를 일꾼으로 보지, 저의 영적인 상태

나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고 느껴져요. 그러다보니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는 신앙과 영적인 삶에 대한 갈급함은 너무나 커요. 하느님이 저한테

뭔가 맡기신 소명이 있으면 어느 자리든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 외로운 거예요. 지금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나눌 곳이 없는 거예요. 직장과 일상에서 스트레스가 심할 때 기도하기보다 그냥 넷플릭스 틀어놓고 누워서 보는 것이 더 편하게 되고... 그런데 마음은 너무 허무하고 이것이 지금 저의 현실입니다.

그냥 저는 신앙이 저한테 힘이 좀 돼줬으면 좋겠어요. 살아가는 힘이에요. 어쩔 때는 정말 “너 이렇게 살

아라.”고 방향 제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일단 성당은 되게 혼계하는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 저는 너무 눈물이 쏟아질 것처럼 힘들어서 하느님께 기도하는데 “필요할 때만 하느님을 찾지 마라” 이런 말들로 제 아픔에 대한 공감 없이 가르치는 교회, 지금 내가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는데 봉사와 실천을 강요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말하는 사랑이 하나도 안 와 닿거든요. 일단 사랑이 채워져야 흐를 수 있는 건데, 사랑이 채워지면 실천하지 말라고 해도 실천하거든요. 사람이 변한다는 게 정말 사람의

**돌아와서 새로운 용기를 얻고
또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그런 샘물 같은 공동체가 그리워요!
수도생활이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 해도 지켜야 될
어떤 우물 같은 걸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정말 목마른 사람이 있을 때
물을 부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뭔가 건드려져야지 되는 건데 교회에서는 건드려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너무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냥 미사가고 봉사하고 성체모시고 고해성사하고... 그냥 반복 반복... 제가 잘못 살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제가 올해로 43살인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저는 그냥 남은 삶을 하느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세상을 위해서 내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진짜 있어요. 오늘 초대를 받은 것이 저를 끌어주신 게 아닐까? 그래서 여기에 오면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며 조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왔어요.

제가 길에서 만난 수녀님들은 너무 멋있었어요. 영

감을 주고, 나의 신앙을 반성하게 되고, 아 저분들이 나의 성장을 지켜보고 있구나. 나의 성장에 관심이 있구나. 내가 성사표 갖다 주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요즘 너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나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관심이 저는 느껴져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 저에게는 제일 큰 선물인 거 같아요. 그러면 다시 용기를 얻고 세상으로 나가 좀 더 힘을 내서 또 전투를 치르고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용기를 얻고 또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그런 사람, 그런 샘물 같은 공동체, 그런 교회가 그리워요! 제가 살아가는 사회에서의 생활은 너무 팍팍하고 만나는 사람들도 내면에 대한 것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딱 거기까지의 사회적 거리, 연결고리도 없고 상처 입기 쉬운 삶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힘을 내서 나에게 주신 소명, 나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를 저는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이원길 요한보스코 형제님

—— 오늘 제가 들어올 때 수녀원 문이 열려 있었어요. 열려 있는 문으로 들어오면서 수녀원 문이 열려있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수도회도 사실 마찬가지로요. 항상 문이 닫혀 있고, 초인종을 눌러야 하고, 뭔가 가려져 있고 경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무도 없는데 문이 열려 있었어요. 이걸 좀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느꼈어요.

자매님이 메마르다고 말씀하시는데 메

마르다는 건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무언가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수도성소에 대해서도 지금 모든 수도회들이 메마름을 많이 느끼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이런 현상을 반대로 “밖에서 부르고 계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수도회에 입회해서 수련기에 나왔는데 세상으로 나온 초반에 상당히 많이 힘들었어요. 수도회를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가 더 힘들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 주변에 엑스(수도회 퇴회자)들이 많은데 엑스들의 삶이 정말 안타까운 친구들도 있어요. 저 또한 퇴회해서 그런 치열한 투쟁을 겪고 나니까 지금은 좀 복합적으로 된 느낌인데, 뭐랄까 저는 수도회를 나왔지만 아직도 살레시안으로 살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그때 거기서 배웠던 걸 하고 있어요.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도전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퇴회를 해서 수도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물론 퇴회하지도 않으시겠지만) 수도생활 자체가 수도원 안에서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밖이라는 것이 안에 있는 것보다 힘든 도전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진짜 갑옷을 두르고 나가셔야 될 거예요.

**관점을 전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소자’를 안에서 바라보면
암울해질 수 있어요.
점점 빛이 꺼져가는 걸로 보일 수 있는데,
반대로 이 부르심을 ‘밖으로의 부르심’,
밖에서 부르고 계신다는 것에
귀를 기울이면 어떨까요?**

요즘 세대가 경계가 무너지고, 크로스오버적(두 개 이상의 다른 것이 섞이는 것)이고, 여러 가지 개념들이 혼재되는데, 이 상황이 주는 도전이 훨씬 크실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원천, 본질을 버려서는 안 될 것이고, 오히려 본질에 대한 훈련을 더 강화시켜서 나가야겠지요. 그래야 세상에서 활용하는 응용력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깥의 상황이 너무도 치열하고 난리가 난 상황인데 그냥 안에만 있는 게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퇴회하는 이유가 ‘수도생활이 맞지 않아서’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저는 수도생활이 맞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인간들이 안 맞았죠. 인간적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수도회를 나왔지만 내 소명을 여전히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수도회 안에 있는 동기들이랑 연락을 주고받곤 하는데 그들의 삶도 팍팍해요. 엄청 바쁘고요. 성소자가 줄고 입회가 거의 없으니 젊은 중간층 수도자들에게서 일이 다 몰리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수도자들이 과로에 찌들어 있어요. 밖에서 사는 것과 안에서 사는 것의 차이가 별로 없이 비슷한 거지요.

지금 성소자가 부족한 이유 중의 하나로 저는 밖에서의 만남이 부족해서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밖에서 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수도자들의 삶의 임팩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르게 안에서 살고 있는 수도자들을 존경은 하지만 따라 살고 싶진 않은 거죠. 존경이란 것도 사실은 사회적 존경이잖아요. 수도복을 입고 있으니까. 만

약에 옷을 벗고도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고 뭔가 특별한 에너지가 있다고 느껴진다면 ‘저건 뭐지?’라는 궁금증이 생명을 끌어들이 텐데요.

저는 관점을 전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소자를 안에서 바라보면 암울해질 수 있어요. 점점 빛이 꺼져가는 걸로 보일 수 있는데, 반대로 이 부르심을 밖으로의 부르심으로 알아듣는다면 밖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특히나 요즘 이런 원천적 에너지를 갖고 계신 수녀님들이나 수도자들이나 신부님들이 밖에 있는 청년들과의 만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요즘 엄청 마약에 빠지잖아요. 고등학생들까지요. 이는 그들이 지금 점점 더 고립되고 점점 더 외롭고 점점 더 결핍되고 있다는 현상이거든요. 그들의 결핍, 내적 결핍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봐요. 오늘 여기까지 초대받은 이 시대의 청년인 우리는 그런 점에서 행운이지요.

정리를 조금하자면 저는 이 수도회의 부르심이 밖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절대 메마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수녀님들이 고민하시는 지점이 수도생활의 양태, 젊은이들이 이 생활 방식에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수도생활의 삶이 청빈, 정결, 순명이잖아요. 그런데 수도원을 나와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는 지금 제 삶에서 제 나름의 청빈, 제 나름의 정결과 제 나름의 순명을 하고 있어요. 물론 비판적 순명을 하고 있고, 상대적 정결을 하고 있고, 상대적 청빈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만요.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 에너지(수도생활의)가 어느

시대보다 더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안에서 기다리시지 마시고 오히려 밖에서 부르고 계신다는 것에 귀를 기울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박진균 안드레아 형제님

—— 제가 크게 느끼는 두 가지 사실 중 하나는 우리가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한 변화의 입구에 지금 딱 서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에 딸린 여러 가지 세상의 양태들이 변하고 있고 또 변해야 하는 시대잖아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직업군이나 이런

새로운 성소를 시작할 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틀 안에서의 생각하고 상상하는 곳으로 이끌고 가려하기보다 당사자들한테 내맡겨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새로움을 열어줄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추동하고 만드는 건 결국 그 세대 당사자들이라고 봐요.

것들도 엄청나게 바뀔 것이라는 예측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변화의 대소용돌이 앞에 있습니다.”라고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남아있을까? 라는 근원적 질문들이 반드시 솟아 나오게 되어 있지요. 상대적으로 오히려 영적인 부분들이 어느 때보다도 갈급하고 중요한 시대에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과거를 돌아다봤을 때 수도생활은 언제나 소수자였다는 것입니다. 다수인 때는 없었어요. 누군가에게 선택되고 특별한 삶이었고 그래서 특별한 삶이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누구나가 하기에 조금 어려웠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기엔 어렵다는 건 그만큼의 도전이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까지 긴 역사를 가진 수도생활은 도전을 살아온 삶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서 도전의 삶은 어떻게 드러나야 될까? 라고 질문들을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원적인 차원에서 수도생활이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 정말 뜨거운 사랑이라고 보자면, 그 사랑 안에서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결국 만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가? 만남에 어떤 한계를 두고 있지는 않은가? 방법적으로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게 될 때 수도 성소, 수도생활에 대하여 변화할 수 있는 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만남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들이며, 그 만남에 있어서 제약을 두지 않는 것에서 어떤 새로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의 여러 수도회들이 정주에서 탁발로, 다시 세상 속으로 움직이고 변화되어 왔지요. 이런 개혁과 변화들이 하느님과 더 깊이 만나고 더 뜨겁게 사랑하려는 마음들 안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에서 만나야 될 하느님은 우리를 어떤 변화로 초대하고 계시는가? 그 변화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만남을 가져가야 될까? 라는 고민들에서부터 “새로운 성소”는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수나 발렌티나 자매님

—— 미리 읽어보라고 주셨던 자료 중에서 저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하느님을 추구한다”라는 게 너무 와 닿았거든요. 제가 회사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특징이 일을 아주 잘하고 아주 프로 패셔널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능력 있어 보이려고 하는데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 오가고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나 태도는 없어요. 그러면서 또 내적으로는 아주 힘들어 하는데, 그런 것을 나누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인간적인 것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를 상상한다면, 인간성을 좀 더 느낄 수 있고,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경험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아까 샘물 얘기도 했지만, 저는 수도회는 좀 달라야 된다는 생각해요. 세상에 나가면 정말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이 사회 구조는 가지고 있던 샘마저 다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도 우리가 신앙인이고 또 수도생활을 한다면, 샘물만큼은 마르지 않게 유지해야 되는 게 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샘물이 나를 위한 샘물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샘물이 되고, 세상을 위한 샘물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은 이 세상이 건드릴 수 없게끔, 세상에 나가서도 그게 다 말라버리지 않게끔 유지하는 힘, 그 힘을 키워주는 역할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수도생활이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 해도 세상과 완전히 똑같이 사는 것이 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지대라고 해야 되나, 지켜야 될 어떤 우물 같은 걸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정말 목

마른 사람이 있을 때 물을 부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영지 루시아 자매님

—— 지도 한 때 성당에 가기 싫었던 적이 있었어요. 꽃숨 모임을 만나 꽃숨 회원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성당에 다니지 않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성당에 나가 미사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을 만나고 함께 신앙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고민도 나누는 만남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저에게도 가장 힘든 것은 만남과 관계의 문제였어요. 신부님들이랑은 성당에서 쉽게 말하기도 어렵고, 말을 하자고 하면 일단 치킨집부터 데려

제가 가장 공감한 것은 교회 안에서 그들의 장소를 얻지 못한 젊은이들이 “우리는 영적 노숙자”라고 표현한 것이예요. 수도회가 교회 안에서 갈 곳 없는 그들을 품어주는 공간이 되고, 공동체가 되고, 영적 멘토가 되어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가요. 치맥을 하면서 얘기하자고요. 알콜이 없으면 대화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딱히 속엿 이야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표면적이거나 피상적인 이야기만 나누고 끝나게 되지요. 세상의 문화와 다를 것이 없다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좋은 신부님들도 계시지만 일단 거리감도 있고, 신부님들이랑 개인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약속을 잡아야 하죠. 또 함부로 찾아갈 수 없는 존재이시고요. 그래도 성당에서는 수녀님들이

랑 얘기를 나누기가 조금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나마 저기 제가 전례를 하고 독서를 하고 있어서 독서 전에 수녀님이랑 같이 만나서 성경독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에서 믿음이나 성경 말씀과 같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신부님들이 청년들을 만나고 가까워지는 방법으로 술자리를 주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것은 결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다른 성당에서 다른 형태의 생기 넘치는 미사나 영적으로 깊은 체험이 일어나는 미사를 하는 것을 보고 그쪽으로 가고 싶어지거든요. 지금 성당에 젊은이들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당연한 것 같아요.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니 젊은이들은 당연히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굉장히 운이 좋아서 꽃숨 모임을 만난 거예요. 그 모임에서 계속 믿음에 대해 생각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고민하고 토론하고 기도해왔거든요. 지금 본당에서 3,40대가 갈 곳이 없다는 데 굉장히 동의를 했어요. 청년은 20대까지이고, 저는 올해 38살인데 굉장히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해요. 이제 1,2년 후에 어디론가 가야되는데, 어디에도 속할 데가 없는 거예요. 소속감을 느끼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지요. 저뿐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알게 된 친분이 있는 지인들 대부분이 40대인데 이분들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갈 곳이 없다고 말해요. 신앙생활이 피상적이고 공허해지는 것이지요. 미리 읽어본 자료에서 제가 공감했던 것은 교회 안에서 그들의 장소를 얻지 못한 젊은이들이 “우리는 영적 노숙자”라고 표현한 것이예요. 수도회가 교회 안에서 갈 곳 없는 그들을 품어주는 공간이 되고, 공동

체가 되고, 영적 멘토가 되어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이원길 요한보스코 형제님

—— 청년들이 성직자, 수도자들을 만났을 때 위로를 느끼는 포인트가 진심으로 들어주는 느낌이거든요. 이 분은 내 얘기를 진심으로 듣고 있고 뭔가 받아들여 주고 있구나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분명히 수녀님들의 존재의 이유가 있고, 오히려 신부님들보다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녀님이라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지 않을까요?

또한 공동체가 존재의 이유가 있구나 하는 걸 느껴요. 밖에서 애들이 흠 묻히고 다치기도 하며 놀다가 집에 들어와서는 씻고 치료하고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다시 바로 잡고 쉬고 그렇게 재충전하고 다시 나가는 것과 같은 거지요. 지금 청년들에게 그런 집, 그런 공동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그냥 원룸 고시원 같은 그런 공간이 아니라... 그래서 공동체 존재 이유는 반드시 있다고 느낍니다. 신부님들과는 달리 항상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의 나름의 고유의 힘, 에너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조영지 루시아 자매님

—— 저는 기존의 수도생활보다 꽃숨 모임이나 새로운 성소 공동체에 더 관심이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새로운 것에 대해 두렵고, 수녀님들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새로운 성소가 훨

씬 더 열린 영역이구나, 제가 상상하고 왔었던 것은 지금 형태의 성소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나눔을 하면서 새로운 성소에 대해 오히려 제가 더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선입견과 편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원길 요한보스코 형제님

—— 수녀님들이 성소자 감소에 대한 체감이 훨씬 빠르신 거 같아요. 그래서인지 수녀회가 훨씬 더 시대에 빨리 적응하고 변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몸담았던 수도회도 후배들이 줄어들어 중간 세대가 감당하는 무게가 커져서 힘들어 하면서 엑스(퇴회자)들이라도 불러모아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엑스들 중에서 일부 사목을 도와주고 있어요.

서약을 카리스마나 컨셉이나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전환하면 해석의 여지가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예전에 어느 수도회가 더 이상 회원이 없어 문을 닫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최후의 수도자는 무슨 고민을 했을까? 수도회를 지켰던 마지막 수도자는 무슨 선택과 무슨 고민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수도회 열쇠는 누구에게 주었을까? 아마 자주 방문한 평신도한테 넘기지 않았을까? 그걸 받은 평신도는 수도원 건물을 관리하면서 방문자가 오면 이 수도회가 어떤 수도회이고 카리스마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안내하면서 자연스럽게 반쯤은 수도자로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성소에 대한 우리의 관념과 의식을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요? 결혼 성소, 수도 성소로 이분화된 생각을 바꾸어 미션에 초점을 맞추어 성소를 바라본

다면 그 영역이 훨씬 넓고 풍성해지리라고 봅니다.

박진균 안드레아 형제님

—— 새로운 성소라는 관점에서 보면 가정도 공동체이자 새로운 수도회잖아요. 미래세대에 대한 고민들은 수도자들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의정부교구 정평위 안에서도 실무자들끼리 미래세대 안에서 우리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고민을 나누곤 해요. 우리는 현장에서 이를 피부로 느끼는데 교회는 아직 문제 인식도 준비도 안 돼 있다고 봐요.

새로운 성소 이런 것들이 새롭다는 건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가는 과정인데, 새로운 성소를 시작할 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틀 안에서의 생각하고 상상하는 곳으로 이끌고 가려하기보다 당사자한테 내맡겨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사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며, 그 움직임에 어떻게 하면 좀 서포트를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새로움은 내가 열어줄 수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추동하고 만드는 건 결국 그 세대 당사자들이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큰 우주적 가정으로의 부르심

예수마리아요셉회 남상효 스테파노 형제님

“마음대로 하면 사람의 일일 뿐이고 순명으로 하면 모든 일은 주님의 일이 됩니다.”

제가 첫 서약을 한 것은 올해지만, 예수마리아요셉회와 인연을 맺게 된 건 어찌면 1999년일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성가복지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는 유방암에 걸리셨고, 유방 절제 수술을 하셨었는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재발하셨고 더는 고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즈음부터 가족들이 떠나고 대학생인 제가 혼자 어머니를 돌봤었습니다. 성가복지병원은 무의탁, 무재산자들만 입원하는 곳이지만 대학생인 제가 매일 하반신 마비된 어머니 관장을 시키고 매일 수발드는 것이 안타까우셔서



예외로 어머니 입원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성가복지병원에 입원한 6개월간 어머니는 처음으로 너무나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지내시다 가셨습니다.

이후 저는 라파엘클리닉이라는 곳에서 10년간 봉사하며 봉사단장이 되기까지 많은 일을 했습니다. 라파엘클리닉에서 봉사를 하다가 문득 의료봉사를 한다면 어머니를 너무나 행복하게 돌봐주셨던 성가복지병원에서 봉사해야겠다는 생각에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봉사하며 지금의 성가소비녀회의 조 오티리아 수녀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파엘클리닉이나 성가복지병원이나 제가 봉사를 한다고 가긴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 때였고, 오히려 그곳에서 제가 힘과 도움을 많이 받았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성가복지병원에서 봉사할 그 때가 삶의 의욕을 잃고 깊은 좌절과 우울 속에 있을 때였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책을 네 권 썼고 지금 다섯 번째 책을 쓰고 있는데 첫 번째 책이 바로 이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되리라’라는 성경 구절도 있지만, 이때부터 저는 정말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던 시기였습니다.

급기야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오고 자살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오티리아 수녀님이 성가소비녀회 안에 있는 안나의 집에서 일하라고 소개를 시켜주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데이케어센터에서 치매 어르신들을 보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늘 고맙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어르신들을 보며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지가 멀쩡한데, 아직 일어설 힘이 있는데...’ 생을 마감하려고 생각한 저 자신이 몹시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고 싶어질 때 즈음 이젠 어르신들을 승합차로 모시러 가고 모셔다드리는 일까지 하라고 해 주셔서 더 많은 수입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삶의 의욕을 조금씩 되찾고 좀 더 돈을 벌기 위해 대리주차 일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성실히 일하다가 대기업 회장님께 눈에 띄어 그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의 인정을 받는 사원으로 열심히 일하며 지냈지만 결국 저는 미래가 보장된 삶을 내려놓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나의 일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새로 시작한 나의 사업은 번창했습니다.



그렇지만 삶이 늘 롤러코스터인 것처럼 다시 저는 곤두박질치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늦게 결혼하고 늦게 아이를 낳아 가정을 꾸렸기에 더욱 앞이 캄캄했습니다. 10년을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고 선물로 받은 아내와 아이가 있기에 그 무게는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느님 손만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때 오티리아 수녀님이 예수마리아요셉회에 나오라고 불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게 된 곳이 바로 성가소비녀회 협력단체 예수마리아요셉회입니다. 처음 예수마리아요셉회의 모토는 ‘성가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당시에 ‘강생’이라는 단어도 들었던 것 같지만 뜻을 잘 몰라 기억에 잘 남지 않았고, ‘성가정’이 모토라고 해서 제 가정을 생각하며 너무나 제게 맞는 수도회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아픈 어머니와 자식을 책임져주지 않은 아버지께 대한 상처를 지닌 저는 누구보다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었고, 늦은 나이에 결혼하기까지 긴 시간 기도를 바치면서 이론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성가정은 그토록 소중한 꿈이었고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교육을 받는데 기대했던 ‘성가정’의 내용보다는 몇 년째 ‘환경’ 교육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가 성가소비녀회에서 통합생태적 삶으로 전환하는데 집중하는 시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마리아요셉회 프로그램도 수도회의 방향과 함께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고백하건대 저는 ‘환경’에 관심도 없고, 그건 저보다 더 깨어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필리핀 증장비 사업과 하는 일들이 뜻한 대로 잘 풀리지 않아 무척

혼란스럽고 힘들 때이고, 계속 제가 이 환경 교육을 이곳에 들으러 와야 하느냐는 갈등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일이 확정되어 떠나면 다시는 오지 못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년간 환경에 대해 교육을 받고, 피정하면서 제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상하게 이때부터 TV를 틀면 환경 다큐멘터리에 마음이 가고, 책을 좋아해서 책을 찾으면 아파하는 지구에 관한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후 가장 아파하는 곳이 '지구'라고 총회에서 결정되어 지구를 살리고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신다는 것을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때부터 제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형 풍력발전기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일이었는데요, 이 일을 지금까지 3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렵פות하게 혹시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지구를 지키는 사명이 이 일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던 것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 풍력발전 사업이 기존에 있던 풍력발전과 완전히 친환경적이고 효율이 높다는 면에서 다르지만 역시 에너지 사업인지라 비용도 많이 들고 경제적으로 힘든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니 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일이니, 그분 뜻대로 잘 되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신 재생에너지, 특히 풍력발전을 통해 가장 아파하는 지구를 살리고 지키라는 소명을 순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솔직히 여전히 경제적으로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 오른손을 붙들어 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할지라도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고, 얼마 전에는 서울시 정부 공모전에서도 당선이 되었습니다.

예수마리아요셉회를 처음 찾아왔을 때 제가 꿈꾸었던 것은 내 가정의 완전한 성화였지만 이제 저의 꿈은 우주적 성가정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내 가정을 넘어 세상의 약하고 상처 입은 생명을 가족으로 품어 안으라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첫 서약을 할 때 유독 성당 입구에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음대로 하면 사람의 일일 뿐이고 순명으로 하면 모든 일은 주님의 일이 됩니다."라는

설립자 성재덕 신부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지금껏 제가 똑똑하고 잘나서 사업이 잘되었다고 생각했고, 운이 나쁘고 주변 환경이 따라주지 못해 사업이 망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제 마음대로가 아니라 순명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주님의 일이 되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데는 잘되는 일도 잘 안된 일도, 슬프고 좌절할 일도 없습니다. 오직 기쁜 일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주님께서 이런 순명의 삶을 살도록 해 주시려고 저를 예수마리아요셉회로 이끌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도 주님께서 저를 이곳 예수마리아요셉회에 불러주셨고, 그분께서 주관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막연하지만, 필리핀과 캄보디아에도, 제 소명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또한 제 마음대로가 아니라 순명으로 주님의 일을 기쁘게 하고자 합니다. 아니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세상 속에서 강생을 살다

예수마리아요셉회 김영숙 에디나 자매님

저의 형제(남편)가 선교사로 춘천교구에 속하는 강원도 산골 물걸리 공소로 파견을 받았습니다. 그 일이 저에게 더 큰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까지 저의 생활은 평탄하고 힘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제와 함께 강원도 시골 공소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 익숙하고 편안한 일상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전 방문을 갔을 때, 공소가 너무도 엉망인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공소라 교구에서는 보존 가치가 있는 공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문이 닫혀 있었던 곳이라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하는지 마음이

불편하고 심란했습니다. 6월 초에 그곳에 한 번 다녀온 뒤로 한 달 동안 마음을 부대끼다가 7월에 최소한의 살림살이만 챙겨 차에 싣고 선교사 형제와 함께 물걸리 공소로 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옆집에만 인사를 하고 공소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거미줄에 묶은 때와 기름 때가 덕지덕지 쌓인 곳을 벗기고 청소하면서 저는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들이 주체가 안 되어 십자가 상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미사 드려야 하는 곳과 당장 오늘 밤 자야 할 방을 치우고 나니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로 이곳에 오는 것을

결정한 것은 자신이니 하루 종일 내 눈치를 보았던 형제가 갑자기 밖으로 한번 나와 보라고 했습니다.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맑은 밤하늘에 별이 너무도 총총했습니다. 그토록 빛나고 그토록 많은 별은 정말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풀벌레 소리, 개구리 소리가 마치 음악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예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을 마련해 두셨는데, 그깟 청소가 뭐라고,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을 정도로 마음 불편해 했던 저를 용서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그냥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기쁜 마음으로 살겠다고 바로 그날 밤에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다음 날, 이웃에 인사를 드리러 나갔습니다. 공소 주변에 약 8가구 정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7월초, 시골이 한창 바쁠 때라 혹시 민폐가 될까 걱정하면서도 인사를 안 할 수는 없어 집집이 들렀는데 다들 좋아하셨습니다. 공소가 동네 한 가운데 조금 높은 지대에 자리하고 있어서 마을의 중심인데 그렇게 오랜 동안 폐허로 방치되어 있어 보기에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누가 들어와서 산다고 하니 다행이라며 환영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집에 들렀더니 아저씨가 팬티 바람에 타월 하나 몸에 걸치고 나오셨습니다. 처음 찾아온 낯선 우리 앞에 계속 그렇게 벗은 모습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온통 천주교 교인들을 홍보는 이야기였습니다. 구호물자 같은 것이 오면 먼저 천주교인들끼리 좋은 거 가져가고 자기들은

기다리라고 해서 조금씩만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천주교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분은 해방 말기에 태어나 6·25전쟁을 다 겪으면서 그 동네 사신 분이었습니다. 동네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거기서 태어나고 7,80대가 되도록 계속 거기서 사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몇십 년 전 일인데도 우리를 만나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마을을 한 바퀴 돌며 인사하고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 우리 공소 주위에 8가구가 있는데, 아무도 신자가 아니라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적어도 거기서 40년은 다 넘게들 사셨는데 이거는 무슨 일이지 제 마음이 동요가 일었습니다. ‘내가 이분들과 잘 살아야지 되겠다. 이분들과 같이 정말 잘 사는 것이 나의 소명이다.’ 이런 생각을 그날 저녁에 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이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래는 말이 없는 편인데 이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먼저 다가가 인사하고 뭘 하시는지 묻고 또 뭐 좀 도와드릴 것이 없냐고 말을 붙이다보니 말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시골 노인들의 삶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 해뜨기 전 새벽부터 나가 저녁 해질 때까지 농사일을 해 오신 그분들이 농사짓지 않은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따라 다니며 하시는 일을 함께 하기도 하고, 고추밭에 일하고 계시면 가서 고추도 따 드리고, 정말 생전 해보지도 않은 호미질도



하고, 할 줄 모르는 낫질도 가르쳐주신 대로 하면서 그분들과 어울려 지냈습니다. 어르신들도 워낙 연세가 많으시니까 어설픈 대로 거드는 저의 손이 그분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머리가 하얀 저를 젊은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나 또한 그분들이 부르는 대로 젊은이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제가 예수마리아요셉회 회원이 되어 모임 때마다 들은 말이 “강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생의 삶을 깊이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항상 내 마음의 밑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공소 성당에서 기도 시작하면서 늘 강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청했습니다. 예수님 마리아님 요셉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야만 된다고, 그래야 내가 오늘 강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조그만 마을에도 119 구급차가 올 때가

있었습니다. 소리가 들려 나가보면, 어느 총각이 농약을 먹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날은 경찰차가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지난 번 농약 먹었던 총각이 또 누구 집에 칼을 들고 들어가 위협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옆집 아저씨는 저에게 너무 부끄럽다고 하셨습니다. 타지 사람이 들어와 석 달도 안 되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내게 너무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니에요. 도시는 다 문을 꼭꼭 닫아걸고 사니까, 이보다 더 한 일이 벌어져도 서로 얘기를 하지 않고 사니까, 모르고 지나가는 거지요. 뉴스에 보면 도시에서 좋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지잖아요. 저도 이런 저런 사연을 겪고 또 보면서 살아왔어요.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으니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서로 마음을 터놓으면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해 추석 전날 우리 공소에서 발 하나 건너면 보이는 집에 경찰차가 소리를 내며 또 들어왔습니다. 추석 지낼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

바쁘니까 그냥 잠깐 내다보고 들어와서 일을 계속 했습니다. 동네가 작다 보니 오늘 일어난 일이면 내일이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곳이라 다음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 집 막내딸이 추석이라고 집에 다니러 왔는데 아버지와 다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 집에 관심을 가지고 자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니 추석이라고 집에 온 딸이 자기를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한 태도에 섭섭했던 아버지가 딸의 머리채를 잡았고, 딸도 아버지에게 반항을 하며 몸싸움이 일어났는데 아저씨가 쪽가위까지 드는 바람에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아저씨가 흥기를 들고 있으니가 경찰이 수갑을 채워 흥천 경찰서로 연행해 갔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 집 아저씨가 평생 술을 퍼마시고 욕하고 때리고 하는 통에 그 가족들이 너무나 시달리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부인이 못 견디고 몇 번이나 집을 나갔다 돌아오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저씨에 대한 동네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참지 못한 가족들, 부인과 아들, 딸 셋이 모두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부인은 “저 영감이 죽기 전에는 나는 이집에 안 들어온다.”고 선언을 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은 아들이 흥천 경찰서에 수감되어 있는 아버지를 집으로 데려다 놓고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술을 실컷 먹고 혼자 잘 살라고 하면서, 1.8리터 소주 다섯 상자를 집에 사두고 떠나버렸습니다. 이 술을 다 마시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될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그 집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 마을

사람들은 다 알면서도 관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그 모습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상황을 잘 알지 못하니까 자꾸 마음이 쓰이는데 그때부터 나흘째 집밖으로 나오는 아저씨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나흘 째 되는 날 나는 선교사(남편)에게 우리가 가봐야 될 것 같다고 말하고 함께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들여다 본 그 방안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방안에 가득한 냄새에 방바닥에 잔뜩 싸놓은 대 소변에, 넘치는 요강에, 뒤집어진 쓰레기통에, 흩어져 있는 술병과 쓰레기에, 뒤범벅이 되어 있는 방안에 아저씨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채로 쓰러져 계시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부르니까 슬며시 눈을 뜨시는 것을 보니 다행히 살아계셨습니다.

“아이고! 예수마리아요셉님!” 이 말이 제 입에서 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저 문턱을 넘어서 들어가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 들어갔습니다. 눈에 띄는 대로 벽에 걸린 타월을 물에 적셔서 똥오줌 범벅이 되어 있는 아저씨를 닦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서 있는 선교사 형제를 빨리 들어오라고 재촉해서 둘이서 아저씨를 닦아 드리고 왔습니다. 몇날 며칠을 드시는 것 없이 술만 마셨으니 이 지경이 되신 거지요. 우선 뜨거운 물부터 끓여서 드시게 하고, 옷도 새로 갖다 입혀드리고, 북엇국도 끓여서 먹이면서 그날 오후에 내내 아저씨를 돌봐드리니 겨우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루 일을 마치면 매일 그 집에 가서 아저씨를 챙겨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는지,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이 강원도 산골로 우리가 와서 살게 하신 하느님의 섭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형제는 어릴 때부터 복사를 하고 자랐기 때문에 항상 중심에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수마리아요셉회 회원이 되면서부터 삶의 깊이가 좀 더 깊어졌습니다. 강생이라는 것, 물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낮은 데서 살아야 하고 남을 도와야 하겠지만, 그보다 더 깊이 아주 낮게 내려가야 한다는 소명을 제대로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아저씨를 매일 찾아갔습니다. 특별히 해드리는 건 없어도 우리 먹는 반찬을 항상 갖다 드리고, 밥은 아저씨가 전기밥솥에 하셨고요. 그런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저씨는 처음엔 부인과 자식들을 욕하고 원망하시더니 점점 마음이 누그러지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아저씨를 달래면서 살고 죽는 것은 하느님 손에 달린 길이고, 아저씨도 이렇게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부인과 화해하고 자식들과도 화해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얘기도 점차 수긍하며 받아들이셨습니다. 아저씨의 상태는 어떤 날은 정신이 말짱했다가 어떤 날은 또 술을 잡숫고 똥오줌을 싸 놓으시면 또 치워드리고 빨래해 드리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디 편찮으시면 병원에 모시고

가거나 배 아프다 하시면 약국에 가서 약 사다 드리고 동네에 모시고 가서 이발도 하고, 먹고 싶은 것이 있다면 간식도 사다 드리고 했습니다.

아저씨의 현실이야 여전히 슬픈 상황이지만은 점점 얼굴이 좀 밝아지시고 그래 또 어떤 때는 또 웃으시기도 했습니다.

한번은 청소해 드리다 보니 양말을 안 신고 계셔서 양말을 신겨드렸는데 “우리 마누라도 안 해줬는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저도 우리 선교사 양말 신겨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술 취해 왔을 때 양말 벗긴 적은 있어도 신겨 드린 적은 없어요.” 이렇게 농담해가면서 같이 웃었던 적도 있습니다.

어느 날 아저씨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누라 돌아오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순간 정말 기뻐했습니다. 아저씨가 하느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돌아가는 순간이니까요. “아저씨! 제가 기도하지요. 우리 선교사도 기도하지요. 우리 손녀들에게도 기도하라고 할게요. 그런데 아저씨 본인의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저씨가 먼저 기도하세요. 우리도 기도할게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던 어느 날 “정말 내가 잘못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먼저 술 먹고, 젊은 날부터 내가 먼저 자식들한테 욕했고 마누라한테 욕했다.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가 만약에 돌아오면 나는 발목을 잡고 용서해 달라 할 것이고 자식들한테도 애비를 용서하라고 얘기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저씨 기다리세요. 아마 아줌마도 돌아오시고 애들도 연락 있을 겁니다.” 하고 용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와중에 아저씨의 건강상태는 계속



안 좋아졌습니다. 어느덧 군불을 때야 하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저씨가 열도 많이 나고 속이 메스껍다며 토하고 이리저서 홍천 병원으로 모시고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갈 준비를 해서 다음 날 아침 일찍 춘천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모시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밥을 해서 들어갔더니 아저씨가 오들오들 떨고 계시면서 “추워, 아줌마 추워” 하시는 겁니다. 봤더니 전날 군불도 안 때고 그냥 주무시면서 또 술을 잡숫고 오줌을 너무 너무 많이 싸신 거예요. 그러니까 추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119에 급히 연락을 하고 우리 집에 있는 따뜻한 옷을 가져다 갈아 입혀드리고 수면양말도 신겨서 119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보호자가 있어야 하니 이장님을 통해서 아들한테 연락을 하고 119가 출발을 했습니다. 집을 나서는데 아저씨가 통장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보관해 드릴 테니 아저씨는 빨리 나아가서 돌아오시라고, 기도하겠다고 말씀드리며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게 떠난 아저씨는 춘천 대학병원을 거쳐 요양원으로 가셨다가 그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1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

었습니다. 이장님을 통해 아저씨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아저씨는 동네로 와서 묻히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저에게 또 다른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저씨네 가족들이 다시 동네로 돌아오셨는데 어느 날 부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가워서 인사를 하는데 뭔가 저를 불편해 하는 기색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일을 동네 사람들을 통해 다 들었겠지요. 그러더니 저에게 할 얘기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아저씨를 돌봐주지 않았으면 더 일찍 죽었을 텐데 라는 원망의 말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하실 수 있는가, 이건 아니다 하는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러면서도 남편에게 얼마나 시달렸으면 저렇게까지 얘기하실까 싶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아저씨와 힘들게 사셨기 때문에 제가 정말 드릴 말씀은 없는데, 죽고 사는 것은 하느님 손에 메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저 제 이웃인 아저씨라서, 아침에 일어나 눈만 뜨면 보이는 게 아저씨 댁이라서 도와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다 섭섭하다 말씀하시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은 아저씨가 ‘마누라가 보약이다.’ 그 얘기를 수없이 우리한테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에 아줌마와 자식들이 돌아오면 많이 기다렸다고, 돌아오면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발목을 잡고 내가 빌 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말씀이 아저씨의 유언인 것 같아서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헤어졌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쓸쓸했지만 그 부인의 입장이 이해 되었습니다. 남편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부인은 남편을 그렇게 내버려 두어 죽게 했다고 동네 사람들이 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고 평생 받은 상처가 당장 아무는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그러면서도 남편을 떠나보낸 죄책감도 있었을 텐데 동네 사람들은 자기 속도 모르고 그렇게 욕을 하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정말 예수 마리아요셉회 회원으로서 그 부인과 화해를 꼭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나 부활 때마다 음식을 해서 동네 분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해 크리스마스 때는 빵을 구웠습니다.

이웃에게 나눠주면서 자꾸만 그 부인이 눈에 밟혔습니다.

그분에게도 빵을 갖다드려야 할 텐데 그쪽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서다가 다시 공소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내서 그분의 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나오시는데 둘 다 서로 어색해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먼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내일 모레라 동네분들과 나눠먹으려고 빵을 구웠는데 아주머니 생각이 너무 간절히 나더라, 그래서 왔다, 혹시 오해하신 것, 서운하신 것 있으시면 이해하고 용서하시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그분과 화해를 이루고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일이 제가 예수마리아요셉회 회원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강생은 더 낮은 곳으로 더 아픈 곳으로 내려가는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배웠을 때, 내가 감히 이 강생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고민되었고 매일 아침 공소에서 기도하며 강생을 살 수 있기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주변에 누가 소외되어 있으면 찾아가고, 누가 아프면 돌봐드리고, 누가 마음이 상했으면 먼저 다가가 화해를 청하는 이 작은 일들이 제가 할 수 있는, 저에게 요청하시는 하느님의 강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을 어르신들이 힘들어하시는 농사일을 도우러 갑니다. 마늘 캐는 날은 같이 캐드리고, 들깨 심는 날은 같이 들깨 심고 이렇게 하루하루 제가 살아가는 강생의 날들입니다.

열심 중에 살으라고 하느님의 사랑과 열정을 가르쳐 주신 성 신부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면서 예수마리아요셉회 회원으로서 수녀님들과 연대하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는 저의 작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하라 소비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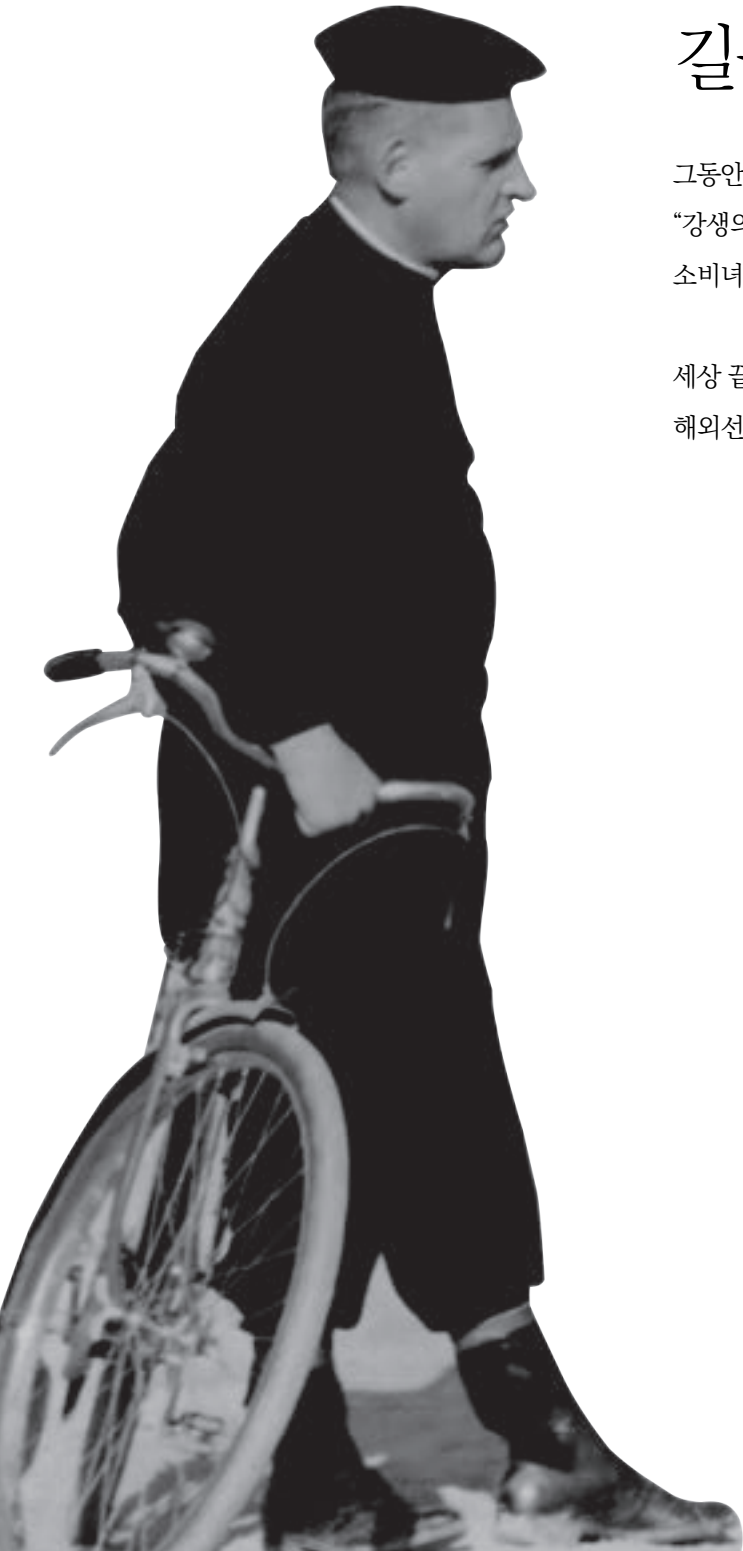
소비녀들,
“기뻐하라 소비녀”를 잊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시대의 요청에 나서십시오.

소비녀의 하느님 체험이,
그 사랑이,
첫 마음이
과거형이 되지 않도록
지금들 사십시오.

오늘의 소비녀 모습이
내일의 성가소비녀회입니다.





강생의 길을 따라

그동안 따로 발간했던 해외선교잡지
“강생의 길을 따라”를
소비녀지가 품었습니다.

세상 끝까지 강생의 길을 이어가고 있는
해외선교 소비녀들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아마존을 꿈꾸며!

이선희 폴 소비녀(볼리비아 파드레호세 어린이집 분원)

비루비루 공동체는 조 소화데레사, 김 마리비타, 이 폴 소비녀가 함께 하며, 지역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린이들과 지역사회에 생태적 감수성과 삶을 전파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2014년 그리고 2023년 어린이집 모습

볼리비아는 아마존 지역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15년은 모든 피조물이 마치 뜨거운 가마 속에서 사는 것처럼 아주 힘든 해로 기억합니다. 이런 직접적인 체험은 우리 공동체가 움직이는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영적으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찬미받으소서」, 「사랑하는 아마존」을 읽으면서 위로와 힘을 받았습니다.

지구가 병들었는데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작습니다. 거꾸로만 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며 이런 노력이 무슨 도움이 될까하는 자괴감에 빠질 때가 많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교황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비루비루 공동체에서는 지금까지 지속가능한 일을 찾아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마존을 꿈꾸며'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어둠이 빛이 되기를 바라면서 9년 간의 지속 가능했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찬미받으소서」 1장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통렬하게 자각하고 그것을 기꺼이 우리 자신의 고통으로 삼아 우리가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찬미받으소서」 19항

‘자각하기’ 불 가마 속에서 숲을 꿈꾸다!

유난히 무더웠던 2015년, 더워서 모든 것이 타버리는 이 곳에서도 어느 순간 시원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 곳은 큰 나무 그늘이었습니다. 그 때 나무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고, 우리에게 닥친 기후위기를 피부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비루비루 공동체에서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나무, 식물 등을 심어 그늘을 만들고, 산소를 방출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기’였습니다. 탄소를 줄일 수 없다면, 반대로 더 많은 산소를 방출하는 것도 방법이겠구나하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부탄은 2019년에 탄소 중립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부탄은 72%의 산림을 유지함으로 더 많은 산소 배출을 하면서 2019년에 탄소 중립 국가로 성공한 나라이었지요. 하지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는 울부짖는 피해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작은 빛이라도 비추고자 용기를 내어보았습니다. 그러한 희망을 담아 어린이집을 네트워크로 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하나하나 늘려가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자연의 놀라운 아름다움과 강과 숲을 가득 메우는 풍요로운 생명을 열렬히 지켜 나가는 아마존을 꿈꿉니다. 「사랑하는 아마존」 7항



2014년 그리고 2023년

어린이집의 정원지기가 되다

빠드레호세 어린이집 아이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며 나무, 식물을 하나하나 심어나갔습니다. 어린이들과 정원을 함께 가꾸어나가면서 자연에 대한 보호와 생명의 존엄성을 가르치고자 하였습니다.

인간의 아름다움이 다양한 방식으로 빛나는

그 탁월한 문화적 풍요로움을 보전하는 아마존을 꿈꿉니다.

「사랑하는 아마존」 7항



작은 숲을 만들어가다.

공소 뒷터에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잡풀이 무성하면 제초제를 뿌리곤 하였습니다. 또 관리가 안되면 버려진 땅처럼 되어 뱀도 많이 나왔는데, 저희 공동체는 그곳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자연을 가꾸어 지역 주민들에게 아름다움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 마라꾸아(패션프루트)를 농사지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자연을 가꾸다 보니 생물 다양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숲이 많았던 주변은 건물이 들어서면서 이제 숲이 거의 없습니다.

오갈 때 없는 곤충과 새, 사라지는 벌들의 소식을 들으며

좀 더 많은 새와, 벌들이 이곳에서 안전하게 머물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오늘도 한 그루의 식물을 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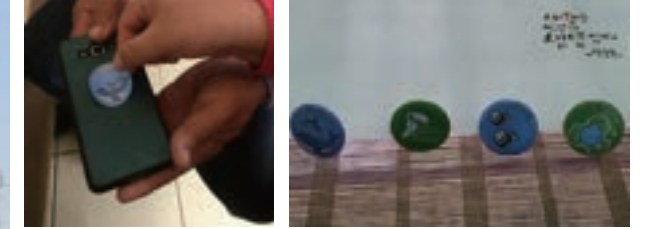
행복한 삶이 무엇일까?

수녀원이 없어서 사용하고 있던 방 벽을 뚫고 현관문을 달았고, 절반은

공동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벽은 자연 벽을 만들고, 학기 중엔 이곳이 공동체

정원 주방입니다. 나무 그늘 아래서 설거지를 하고, 저녁에는 별을 보며 설거지를

합니다. 그 때 하루의 행복한 순간입니다. 모기만 아니면...



지구의 스피커가 되어주기(소리 내어주기)

-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을 활용하여 퍼포먼스와 홍보물을 만들어 지구의 스피커가 되어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환경인

물과 공기와 땅이며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인 지구를 훼손하고

파괴하는 행위를 중지하라고 요구합니다.

지구는 피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마존」 42항

볼리비아 사람들은 단체복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 단체복을 어디든 입고 다닙니다.

그런 장점을 살려 티셔츠에 아마존의 상징인

동물과 교황님의 호소를 함께 넣어

‘환경 홍보 티’를 제작하여 알리고 있습니다.

(2022년 시즌1: 두칸 새, 2023 시즌2: 악어)



불편한 생활 - 탄소 중립을 위하여!

일회용 사용이 덜 되도록 행사 때 설거지를 자발적으로 합니다. 가까운 거리는 수레를 끌고 다닙니다. 저희 공동체에서는 쓰레기를 알아서 처리합니다. 최대한 쓰레기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차가 오지 않아 불편합니다만, 이런 저희의 작은 노력들이 지구에게는 좋은 일이겠지요?



사람을 돌보는 일과 생태계를 돌보는 일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한 그루의 나무와 아이들을 돌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그루 나무의 꿈

한국 휴가 때 어느 수녀님이 주신 간식비로 나무를 사서 심었습니다. 그 나무를 잘 가꾸어 아이들을 위한 등나무 교실로 만들고 싶은 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교감이란 것이 이런 것일까요? 마음이 통했는지 나무는 너무나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 밝힐 수는 없지만,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 하나 빛을 비추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 비루비루 공동체 2023년의 목표는 '반딧불이처럼 자신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자'입니다. 저희의 빛이 보이시나요? 감사합니다.





필리핀 공동체 강생의 여정

이봉숙 필로메나 소비녀(필리핀 파라냐케 분원)

필리핀 파라냐케 분원은 1인 사도직을 하며 열악한 사도직 현장을 회원들에게 선교체험의 장으로 열어 두었습니다. 이 필로메나 소비녀가 소임하고 있습니다.

성가소비녀회 설립 80주년! 80주년을 기념하며 준비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하여 돌아가신 설립자 성 신부님, 초창기 소비녀들 그리고 현재의 우리 소비녀들이 서로 만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소비녀라는 연장선 안에 함께 하고 있음을 깊게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들과 맞물려 필리핀 공동체를 돌아보니 어느새 10년을 넘어 열두해의 선교 여정 중에 있습니다.

80년 수도회 역사 속에 필리핀 공동체 또한 작은 부분 함께 해 올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강생의 자리'인 이 곳, '문틴루파', '파라냐케'에서 함께 한 이야기,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신비체 가족들의 소박한 이야기입니다.

필리핀 강생의 첫 자리, 문틴루파 공동체 Southville3 퍼블릭 하우징

필리핀 첫 공동체는 2011년 문틴루파 Southville3 퍼블릭 하우징에서 월세로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첫 공동체의 구성원 중에 한 명이였지만 2012년 11월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년 남짓 있던 곳이었지만 한국에 돌아가서도 쉽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간절해도 하느님 뜻이 아니라면 저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은총을 청했습니다. 저는 문틴루파 공동체를 떠났지만, 공동체를 지키며 선교 소임을 계속 이어갔던 소비녀들은 사도직의 밑거름을 다져 주었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을 방문하고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연결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본당의 Animator들과 복사들을 대상으로 교리 재교육, 피정 지도, 공부방 운영, 환자들 방문과 병원 동반 등 직·간접적으로 돕는 일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Southville3 퍼블릭 하우징이 빠르게 발전해 가고 있음을 소비녀들은 인식하였습니다. 수도회의 카리스마에 더 충실하기 위해 '파라냐케 시' 카비하스난 지역의 '공립묘지'와



그 주변 지역을 리서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공동체를 파라냐케시로 옮겨 왔습니다.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도 필리핀 공동체의 주춧돌이 되어 준 소비녀들의 희생과 수고를 잊지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학생들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만 방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생의 자리, 'Tramo3'와 '공립 묘지'

파라냐케 입구를 들어서면 왼쪽으로 'Tramo3'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곳은 잘 조성되어진 공원입니다. 높은 담장을 사이에 두고



뒤쪽으로 'Tramo3'가 있고 앞으로 공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원이 들어선 자리는 쓰레기 집하장이었던 곳으로 'Tramo3'로 이주한 120여 거주민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현재는 한 집에 여러가구들이 세들어있어 처음보다 훨씬 많은 200여 가구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구들의 주 생계수단으로는 Tramo3내에서 사리사리 스토어(능구멍가게), 공사장 노동일, 먹거리(튀김, 햄버거 등), 재활용 쓰레기를 줍는 일, 청소 미화원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장학금을 지원받는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선생님, 경찰, 엔지니어링 등의 꿈을 갖고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동네 안에 '공립묘지'가 함께 있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필리핀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무덤의 형태는 아파트 식으로 쌓아 올라가는 것과 개인 무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많이 궁금하시죠? 개인 무덤은 윗부분이 평평하여 그 곳을 방바닥으로 집을 꾸미고 있습니다. 아파트식으로 무덤 꼭대기에 거주지를 두는 가족들도 있지만 난간이 없어 아이들이 놀다가 떨어져 크게 다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거주자들은 묘지에서 태어나 그 묘지에 묻히는 삶을 대물림하고 있었습니다. 우물 하나가 묘지의 위생시설 전부였고 이 곳에서 빨래와 목욕을 하고 여름이면 아이들의 물놀이 장소가 되었습니다. 놀이터가 따로 없는 아이들에게는 무덤 전체가 놀이 장소였습니다. 거주민들의 생계수단으로는 배당받은 묘지를

보수·단장하거나, 쓰레기를 주워 재활용 가능한 것들을 고물상에 팔아 수입을 얻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힘들지만 11월 위령성월을 맞이하기 전, 한두 달 동안은 제일 신나게 일을 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느라 태양빛에 그을려 얼굴은 새까맣게 되었지만 마음만은 행복합니다. 무덤을 잘 꾸며 놓는 만큼 무덤을 찾는 가족들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수입으로 12월 크리스마스와 연말과 새해를 준비할 수 있고 무덤을 단장하기 위해 빌린 돈도 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월 위령의 달은 가족들이 묘지를 방문하고 기도하는 달입니다. 학교도 일주일 방학을 합니다. 묘지는 24시간 개방되며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경찰들과 봉사자들이 배치되고 묘지 밖에서는 초와 꽃, 먹거리 장사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어 축제와도 같습니다.

정부와 파라냐케시는 장기간 계획으로 수상가옥과



무허가지역의 거주민들을 외곽지역으로 이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5년 4월 묘지의 거주민들은 이를 동안 인근 다른 무허가지역으로 이전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불평 한마디 못하고 바랑가이(노동사무소)에서 내주는 트럭으로 짐을 싣고 새로운 무허가지역으로 강제 이주되었습니다.

Our Lady of Peace 지역

묘지에서 강제 이주 되어 간 곳은 바나나밭을 메운 땅으로 집 한 채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파라냐케시의 다른 무허가지역으로부터 이주되어 온 거주민들도 자신들이 살 집을 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바랑가이로부터 집 기둥으로 세워질 긴 나무 몇 개와 동네 어귀에 실어다 놓은 건축 폐기물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 전부였습니다. 하늘을 보며 잠들고 눈을 떠야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들이 살아갈 집을 영성하게나마 만들어 갔습니다. 상·하수도 시설과 화장실(공동·가정)이 갖추어지지 않아 동네 안은 오물들이 곳곳에 쌓여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맨발로 골목길을 다니고 그 곳에 앉아 놀이하면서 쉽게 피부병과 기생충에 감염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고 기생충 약을 먹여도 같은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비위생적인 환경이 큰 원인이었으므로 후원을 받아 각 집마다 화장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 집이라도 화장실을 더 만들어 주기 위해 인건비를 쓰지 않고 서로 품앗이를 했습니다. 수도와 전기가 들어왔지만 가장 먼저 놓아야 할



하수도 배관 시설은 이 지역이 철거될 때까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적은 양의 비에도 골목마다 비가 고이고 통행에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우기 시즌에는 잦은 폭우로 지대가 낮은 곳에 집들은 문 앞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가난한 가족들은 대부분 쓰레기 줍는 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수입 100페소~300페소(≈2,300원~6,900원)로 평균 8~10명의 가족들이 하루 한 끼 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 일을 못해 수입이 없는 날에는 배를 굶기도 했습니다. 필리핀의 공립학교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들의 무관심과 여러 가지 이유들로 출생증명서가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늦은 출생증명서를 신청하려면 부모의 신분증부터, 서류작성과 복잡한 절차, 연령에 따른 범칙금까지 각각의 책정된 금액을 내야 합니다. 하루 한 끼 식사 해결도 벅거운 가난한 가정에서 이것을 낼 수 있는 목돈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부모들과 함께하며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두 마친 후, 입학할 며칠 앞두고 교복과 가방, 신발, 학용품, 속옷 등등 학업에 필요한 전부를 구입해 주었습니다. 시작은 어렵지만 아이 한 명이 입학의 물고기를 트고 나면 형제들도 연이어 학업의 기회를 갖고자 원했고 이웃에게까지도 배움에 대한 열정이 번져 나갔습니다. 입학한 아이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연결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또 담임선생님들의 협조를 얻기 위해 학교를 방문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과도 만남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5년의 시간이 흘러 임시 거주지였던 'Our Lady of Peace' 거주 가구들이 2020년 2월부터 그룹별로 외곽지역에 지어진 하우징(임대주택)으로 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다행인 것은 끝까지 떠나지 않고 머물렀던 가족들은 임대주택을 하나씩 받을 수 있었습니다. 떠나는 가족들의 모습을 놓칠까봐 이른 아침 미사가 끝나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짐을 싸고 떠날 준비를 마친 가족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나누면서 마음이 먹먹해져 왔습니다. 60여 가구를 남겨 놓고 팬데믹으로 필리핀 전 지역이 봉쇄되어 통행이 금지되었습니다. 팬데믹이 풀리면서 하우징을 받지 못한 몇 가구만을 제외하고 모두 외곽지역으로 떠나갔습니다. 폐허처럼 남겨진 이곳에 지금은 대형 Mall이 들어서 있습니다. 과거의 흔적을 이곳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지만 제 선교의 삶에 강생의 뿌리가 되어준 이곳의 가난한 이들은 제 기억 속에 계속 살아 있을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필리핀 전역의 봉쇄

지나고 나니 어떻게 이 시기를 보내고 오늘을 맞이할 수 있었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필리핀은 팬데믹 동안 여러 번의 봉쇄 기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가정마다 출입증을 나누어 주고 주 1회 정해진 요일에 시장이나 슈퍼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바랑가이(≒동사무소)로부터 5번의 구호품을 받을 때면 어려운 이 시기를 함께 보내고 있음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네 입구는 검문소처럼 군인과 경찰 바랑가이 직원들이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방문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Our Lady of Peace의 남은 가족들과 또 우리가 방문하는 다른 지역의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코로나로 죽는 것이 아니라 굶어 죽을 것 같다”고 우리에게 호소하였습니다. 쓰레기를 줍던 가족들은 봉쇄로 인해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되어 구호품에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수교회, 올마이키즈, 수단장학회 등의 후원으로 마스크, 쌀과 식료품을 지원하고 어린아이들에게 간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핸드폰, 태블릿과 학비를 지원받아 학업을 계속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대중교통 운행 중단으로 쌀과 식료품을 구입하고 가족들이 거주하는 곳까지 물품을 운반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만할까’ 고민하며 돌아오는 날에는 자가용, Tricycle이 지나가면 우리를 태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방문하는 지역의

바랑가이 직원들이 나눔 소식을 전해 듣고 우리와 함께하며, 직원들과 차량을 계속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배고파하는 가난한 이들에게 너희가 양식을 주어라’라고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기쁜 마음으로 팬데믹 기간 동안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나서고, 방문하고 만나는 매일의 일상 안에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하느님 사랑, 강생’을 거듭 거듭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체험들은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나의 소명’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가 방문했던 묘지와 Our Lady Of Peace 무허가 지역의 거주민들은 떠나갔지만, 아직도 코스탈, 블롱안, 다리 아래 강가, 도로 옆, 거리 위 그리고 또 어느 무허가지역에서 많은 가난한 이들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스안데스에서 온 편지



로스안데스 분원

뿌에스토 분원이 새로운 선교지를 찾아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분원 이름도 로스안데스 분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산타로사델사라 본당에 머물면서 본당 신부님의 손길이 못 미치는 지역의 교리교육과 말씀의 전례를 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스안데스는 이 본당의 공소 중 하나입니다. 김 로사리아, 김 야콥, 김 아드리아나, 이 베르나 수녀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산타로사델사라 본당엔 일 년에 큰 행사가 두 개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6월 성체 성혈 대축일 행사입니다. 본당 청년 단체는 부활 대축일을 지낸 후부터 성체 성혈 대축일 어찌 지낼까 서로 묻고 고민하고 저희에게도 좋은 조언을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는 아직 이 마을에 적응하는 중이라 뭐라 조언은 못해줬지만 한국 무용을 하나 보여 줄 수 있다 하였고, 생각 끝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인 아리랑에 맞추어 춤을 추었고 호응은 아주 좋았습니다. 신부님과 신자들은 모두 아름답다고 박수를 많이 쳤습니다. 마을 체육관에서 오후 3시부터 저희의 아리랑 춤으로 시작한 행사는 두 시간 동안 첫영성체 어린이, 견진 학생들의 볼리비아 전통 춤과 각종 시와 노래를 선보인 후 미사를 하고 본당까지 성체 거동을 하고 마쳤습니다. '성체안의 예수님과 함께 걷기'라는 주제로 거행된 이 행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커다란 기쁨이 되었고, 저희는 이곳 주민들의 성체 신심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8월 30일에 지내는 본당 축일 축제입니다. 산타로사는 이곳 신자들의 수호 어머니로서 대단한 신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제 두 달 전부터 준비하는 이곳에서 제일 큰 행사입니다. 본당 축일 전 9일 기도는 9개 구역을 매일 한 구역씩 돌려 기도를 하였고, 9일째인 축일 전야는 성당 앞에서 야외 미사로 성대하게 지냈습니다. 축일 본날에는 새벽 4시부터 미사로 시작하였고, 오전 9시 미사에는 레네 대주교님께서 오셔서 미사를 집전하시고 저희가 준비한 한국 음식을 드셨습니다.

6월부터 파뜨로데마르소 라는 공소에서 첫영성체 교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소에도 작은 성당이 있고 가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미사가 있었는데 갈 때 마다 첫영성체를 받지 못한 아이들이 많이 있어 본당 신부님이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동안 차편이 없어 갈 수 없었는데 로사리아 수녀가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수요일 오후에 본당 트럭을 운전하고 가서 교리를 시작했습니다. 어린이들의 수가 매주 불어나 현재 29명이 되었고, 견진 교리도 10명이나 되어 수요일 오후에 첫영성체 교리 후 견진 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파뜨로데마르소로 첫영성체 교리를 하러 가려면 길이 너무 험하여 43km밖에 안되는 길을 시속 30km로 왕복 4시간 운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소 가는 험한 길이 어느 한 구간만이라도 정리가 되어 있으면 길이 좋아졌다 감사하고, 한국에서 60년대이나 볼 수 있는 화장실에 모기가 막 날아 다녀도 수세식 변기만 있어도 저희들끼리 좋아라 합니다. 작은 텃밭도 이제 자리를 잡아 무가 잘 자라고 있고, 열무는 벌써 두 번이나 김치를 담았습니다. 열加里, 동부콩, 완두콩, 가지, 상추 등등 매일매일 추수하는 기쁨도 커져 갑니다. 이렇게 가난한 곳에서 기쁘게 살 수 있는 은총을 주시니 감사드릴 뿐입니다.

남미 선교 공동체 소식

볼리비아 산홀리안 공동체

볼리비아 산타크루즈에 있는 산홀리안 마을에서 박 세영알렉시오, 정 호영베드로, 이 체칠리아 수녀가 선교하고 있습니다.

산홀리안은 4계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볼리비아의 고지대에서 일자리를 찾아오거나 홍수로 인해 이주해온 사람들이 많고, 이들 대부분이 도시 빈민을 형성하고 있는 곳입니다.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나마 부모들이 일을 나가 비운 집에 아이들만 지내고 있는 가정도 많아 소비녀들이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우리가 처음 파견될 때 산타크루즈의 주교님은 가정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산홀리안 마을의 특성이 집과 집 사이의 거리가 멀어 가정 방문이 쉽지 않고 걸어서는 하루에 몇 집 찾아가기도 힘들었는데, 지난 해 미바회로부터 차량을 지원받아 방문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의 네 수녀들이 하고 있는 일은 가정방문 뿐만 아니라 본당 제의실, 첫영성체 교리, 어린이 선교단, Los Angeles 공소일도 맡고 있고, 세영 알렉시오 수녀는 신부님의 요청에 따라 다리오 마이세르 중고등학교에 나가 학생들을 상담해주고 가정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녀원 공간에 작은 진료실을 마련해서 호영베드로 수녀가 마을 주민들에게 수지침 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알바레스 분원

알바레스 분원은 정 정혜엘리사벳, 함 아가페, 정 요안나프란치스카 수녀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알바레스 시립병원에서 원목 사도직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알바레스 시립병원은 대부분 가난한 환자들이 이용하는 병원으로 우리 수녀들은 환자들의 병원 일상을 영육으로 돌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살펴 드리다가 퇴원 후 시설로 보내어지는 아무 연고도 가족도 없는 환자들을 방문하는 일도 중요한 소임 중 하나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꾸준히 방문하고 있고 필요하면 더 자주 가기도 있습니다. 올해는 알바레스 성당 밑에 예수 성심상 퇴색된 색을 벗기고 수녀들이 정성껏 유화로 색칠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병원에 진료 오는 환자분들이

자주 오셔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니 애쓴 보람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함 아가페 수녀는 7월 15일~16일 한인 성당 신자 14명의 피정을 동반했습니다. 영적으로 목말랐던 신자들에게 단비와도 같은 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차코의 아비아떼라이 공소가 설립 70주년을 맞아 우리를 초대해주어서 10월 6일~10일, 4박 5일간 차코에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철수하고 3년 만에 방문했는데 공동체가 얼마나 눈물로 반기고 애뜻해하는지 우리의 23년 선교의 열매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떠난 후 목자 없는 양떼처럼 우리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차코의 교우들과 만나 대화하고 기도하고 돌아와서도 그들의 모습이 마음에 남아, 사도 바오로가 선교지에 편지를 써 보내고 걱정하던 그 심정을 조금은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는 수녀원 베란다에 심은 채소들이 잘 자라나 공동체의 생태적 삶에 윤기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에바베론 분원

에바베론 분원은 에바베론 도립병원에서 원목사도 직을 하고 있습니다. 도립병원이라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 돌봄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때로는 퇴원한 환자도 방문도 합니다. 요즘은 응급실과 병원 처마 밑에서 노숙을 하시는 분들에게 음식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뜨거운 차와 설탕 그리고 과자를 준비하여 나눠드리고 점심과 저녁은 환자 배식 후 남은 음식을 뜨거운 차와 함께 가져다 드리는데, 보잘 것 없는 음식이지만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눈물겨운 음식임을 체험합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다며 고개를 땅까지 몇 번씩 숙이는 그분들의 가난 앞에 우리의 부유함을 성찰하게 됩니다. 쉬는 날과 평일 오후에는 가난한 마을(비자)에 틈틈이 다니고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가족 해체 등 가난한 이웃의 외로움과 고통이 예전보다 훨씬 더 크고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질적인 도움도 필요하지만 복음으로 그분들의 아픈 영혼과 마음을 돌봐드려야 할 필요성을 깊이 느낍니다. 에바베론에는 우 요세파, 유 시몬, 김 요한세례자 수녀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시아 선교 공동체 소식

베트남 빈즈영 공동체

베트남에 파견된 수녀님들이 2013년 8월 31일부터 일궈온 빈즈영 한글학교가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한.베(한국인 아버지





베트남인 어머니) 가정의 아이들과 어머니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한글교육을 위해 시작한 학교가 10년 역사를 이루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느님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9월 9일에는 한글학교 1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손님들도 초대하고 기념품도 만들고 10년 역사를 담은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준비해서 즐겁게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교장 선생님이 인형선물 준비와 미술쇼 하시는 분까지 초대해서 작고 소박하게 하려 했던 잔치가 성대한 잔치가 되었습니다. 모두들 행사에 만족하고 좋아했습니다. 우리 수도회와 수녀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주신 덕분에 긴 시간 동안 이 사도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빈즈영의 박 호세아, 김 클레어, 이 모린 수녀가 감사 인사드립니다.

베트남 투득 공동체

투득 공동체는 양성 담당인 김 오상비오 수녀와 유기서약자 찐 다니엘, 머 마리오나, 리엔리타 수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유기서약자들이 주축이 되어 교구 성소주일 행사에도 참여하고 7월에 수련장

수녀님과 지청원자 담당 수녀님께서 베트남 방문 하셨을 때 함께 만난 성소자들과도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활기차게 지내고 있습니다. 유기서약자들은 지난 8월 유기서약자 전체 모임과 연피정을 하기 위해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수도 공동체의 사랑을 다시 한 번 온 몸으로 느끼고 각자의 성소와 서약의 의미를 보다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초창기 소비녀들의 역할로 때로는 힘들고 부족하게만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결국 앞으로



신축이 필요한 여학생 기숙사 전경

나아갈 은총의 길임을 믿으며 한 발 한 발 씩씩하게 걸어 나가고 있는 베트남 소비녀들을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캄보디아 짬나옴 공동체

캄보디아 짬나옴 공동체는 네 소비녀가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짬나옴에는 이 그레이스 수녀와 이 마리아콜베 수녀가 지내고 있고 박 세라피나 수녀는 크나르미엔 성당에서, 강 루하 수녀는 언어실습 중입니다. 이 그레이스 수녀는 짬나옴 성당일과 함께 주로 마을 환자들을 방문 간호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땡기열 환자가 많아 걱정이라고 합니다. 이 마리아콜베 수녀는 지역 초·중고생들에게 영어와 음악을 가르치고 있고, 짬나옴 공동체 1층에 도서실과 모래놀이실을 마련하여 인천관구에서 지원받은 피겨를 세팅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 세라피나 수녀는 크나르미엔 성당이라는 새로운 강생의 현장으로 파견되었습니다. 비만 오면 물에 잠기는 성당과 오래되고 낡아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운 학생 기숙사가 있는 곳입니다.

성당과 학생 센터를 새로 지어야 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강 루하 수녀는 따엄 성당, 빼악스나앵 본당에 있는 장애인 기술센터, 시엵립의 성요셉 학생 센터 등에서 언어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어학연수 - 송 버나뎃 수녀

선교지 파견 준비로 필리핀에서 어학 연수 중인 송 버나뎃 수녀는 필리핀 케손 시티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학원에 일본, 베트남, 콩고, 폴란드 학사님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어서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을 접하면서 많이 깨지기도 하고, 자신의 기준과 틀을 벗어나도록 도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국제 양성소가 많아서 양성을 받는 기초양성자들도 영어를 배우러 많이 오고 양성 담당을 준비하려고 오는 수녀님들도 만나면서 이 많은 수도회 중 진정 소비녀, 우리의 카리스마, 저의 부르심, 수도자의 정체성을 다시금 새롭게 생각하게 됩니다. 매우 비슷한 점도, 참 다른 점도 많이 보게 됩니다. 국내에 있을 때보다 더 수도회 홈페이지와 수도회에서 올려주신 자료들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제37호



이 곳 필리핀과 세계 곳곳의 상황을 바라보며 더욱 악화되어가는 기후위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요즘은 조금씩 제 습관을 변화시켜보려고도 노력하며 제가 있는 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국 분양 공동체

분양 공동체는 네 소비녀가 살고 있습니다. 전 마리아숨파 수녀는 성소자 담당을 하며 18세~60세의 피정대상자들을 상대로 피정을 도와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접하면서 겉으로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기 보다는 기도 속에서 위로와 힘을 주려고 합니다. 비 마튜 수녀는 본당 사도직을 맡아 매일 아침 렉시오디비나로 영적 준비를 하고 주일학교와 어린이 교리수업, 성가연습과 미사 반주, 혼배 축복식 등 본당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자 방문도 하고 있는데 소비녀로서 꼭 필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위에 하비에르 수녀는 총원에서 계속수련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치유자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몸과 마음의 상처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치유 방법에 대한 이해가 커졌습니다. 계속수련으로 의무실을 몇 달을 비웠더니 환자들이 많이



기다렸는지 돌아와서 바쁜 나날이었습니다. 권 벨리나 수녀는 교구 사회복지 센터에서 소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대구까리따스의 해외배분사업에 신청한 "몸과 마음은 하나, 건강한 나" 암환자 및 중병환자 동반의 프로젝트가 통과되어 암환자 동반에 집중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어떻게 함께 하면 좋을지 늘 고민하고 도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름 신앙 캠프나 다른 본당 신자 교육, 성경 공부 동반, 환자 방문 등도 하면서, 회계사 자격을 따기 위한 공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국 연길 공동체

연길 호스피스 병원에서 소임하고 있는 이 스테파노, 성 테레사 수녀의 소식입니다. 성 테레사 수녀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동반하며, 틈틈이 텃밭도 가꾸어 결실을 이웃과 나누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로 약학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테파노 수녀는 한국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요즘은 암환자와 가족들을 만나고 있는데 주변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연길 공동체에서는 그동안 하루 한 분원을 기억하며 묵주기도를 해오고 있었는데 요즘은 80주년 기념 전 회원을 위한 기도예에 합류해서 바치며 영적으로 더욱 긴밀하게 수도공동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후원



성가소비녀들은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에 선교사로 파견되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36101-04-030207 재)성가소비녀회
TEL 02)940-5815,5816

지금은 당신이 설립자요

이제는
당신들이 해야 합니다.
설립자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새로운 미래가
당신들 앞에 열려 있습니다.

주님의 강생은
참으로 창조적이고
끊임없이 새로운 사건입니다.

소비녀들이 새로운 시대를 읽고
더 깊이 더 창조적으로
강생의 길을 열어가십시오.



그 작은 길은 세상을 품고 하늘에 닿아

좋으신 스승이신 예수님!
당신의 거룩한 손에 더욱 맛갠 연장이 되고
더욱 훌륭한 수도자가 되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희에게 의견을 주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소서
모든 수도자들 중에서 첫 번째 수도자는 당신이시며
모든 수도자들의 모델도 당신이시나이다.
당신은 무한하신 자비로 저희를 부르셨나이다.
“너를 택한 것은 바로 나다”하시며
저 같은 부당한 죄인을 아름다운 수도생활에 부르셨나이다.
당신은 저희가 바로 여기에서 영혼들을 위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저희 또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시나이다.
좋으신 스승이신 예수님!
저희는 참으로 좋은 수도자가 되고 싶나이다.
저희는 항상 정직하게 강하게 항구하게 당신을 사랑하고 싶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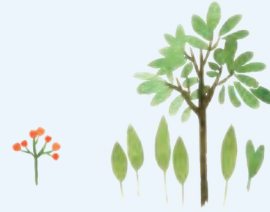
- 설립자의 기도 -

입회식



2022. 1. 14. (84회)

팀 쓰레이넷 소화데레사, 벤 찰리 소화데레사, 판 넷 레 마리아 자매



청원식



2023. 9. 21. (84회)

타이 티 폼 마리아고레띠, 팀 스라이니엣 소화데레사, 판 넷 레 마리아 자매



입회식



2023. 8. 3. (85회)

더우 투이 안 농 소화데레사 자매



착복식



2022. 2. 2. (82회)

도 티 쉘런 다오 모세, 쩌티 흥 데레사칼쿠타 소비녀



첫서약



2022. 2. 2. (80회)
썬 투이 리엔 리타 소비녀



첫서약



2023. 2. 2. (81회)
닌 트느 화 마르틴 소비녀



종신서약



2020. 2. 15 (71회·72회·73회)

김애숙 요한세례자, 정지영 마르첼리노,
김진영 진영마리아 소비녀(인천 71회)
한혜령 아녜스, 한지영 임마누엘, 안소현 에스텔 소비녀(의정부 72회)
백수연 소피아, 홍안나 그라시아 소비녀(의정부 73회)

종신서약



2022. 2. 19. (73회·75회)
이아름 바오로, 성소영 데레사 소비녀(인천 73회)
김누리 사무엘, 이정미 기쁨 소비녀(의정부 75회)

종신서약



2023. 2. 18. (74회·76회)
이나경 사도요한, 송명은 버나뎃 소비녀(인천 74회)
최지현 바오로, 황누리 예수아 소비녀(의정부 76회)

은경축



2021. 10. 18.

의정부·인천관구 55회(1996.10.18. 첫서약)

안순희 제네시아, 김희자 샤를르드후고,
김명숙 윤희요셉, 김윤숙 마티아, 허란행 명서베드로,
이봉숙 펠로메나, 심미영 마리노, 이승연 카니시아,
송진여 마리그라시아, 김선미 니꼬데모,
정선숙 경환프란치스코, 김경임 안포니나, 황재순 칸델라,
유미라 안나마리아, 문미숙 토마스모어, 신동옥 엘리스 소비녀



은경축



2022. 10. 18.

의정부·인천관구 56회(1997. 10. 17. 첫서약)

김순미 디도, 김성은 대건 안드레아, 최양희 자선토마스, 김미숙 야고보, 도윤화 폴리나,
정경숙 마르타, 김재희 크레센시아, 이미숙 크리스틴, 정은희 호영베드로, 전주정 분도 소비녀

은경축



2023. 10. 18.

의정부·인천관구 57회 은경축(1998. 10. 17. 첫서약)

정계선 디에고, 이승재 유정롤베드로, 이경희 주세페, 강혜순 이윤일요한,
김진영 마리젬마, 김현미 데니스, 박희정 호세아, 김종순 이나시아,
민명숙 루이스, 김영숙 아드리아나, 정지영 리베라따, 정복영 안젤로 소비녀

금경축



2022. 4.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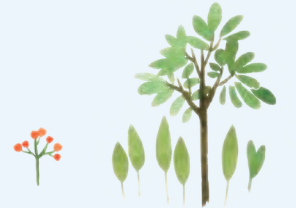
29회 노희순 릿따, 김정자 레오, 김정자 레문도, 정현숙 호스티아, 최수연 살레시아, 하정숙 로자리오 소비녀



JMJ
입회식



2023. 5. 15.



JMJ
첫서약식



2022. 5. 19.

금경축



2023. 4. 20.

30회 정옥수 실베스텔 소비녀
31회 이구원 힐라리오, 윤미순 젤마, 민숙기 예로니모,
김영희 에스텔, 고준경 프란치스코, 홍종숙 이자벨 소비녀

JMJ
첫서약식



2023. 5. 15.



별이 된 소비녀들 ☆



故김청옥 루수 소비녀(향년 80세)

1943.5.7.~2022.2.17.

1964년 5월 4일 입회한 김 루수 수녀님은
1971년 5월 1일 첫서약 후부터 주님께로 돌아가는 날까지
수도생활의 대부분 병원 사도직과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는 일에 헌신해왔습니다. 노년의 시간에도
공동체를 위해 따뜻한 밥을 지으시고, 젊은이들 못지않은
낭랑한 목소리로 성무일도 선창을 하며,
늘 정답게 말을 거시던 겸손하고 따뜻했던
수녀님을 그립니다.



故조아가다 아오스딩 소비녀(향년 88세)

1935.2.24. ~ 2022.5.30.

아프실 때 조차도 틈만 나면 정원에 나와서 풀을 뽑으시고,
무슨 일이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움직이시던
조 아오스딩 수녀님, 길가다 인사를 건네면 맑고 밝은
얼굴로 인사를 받아주셨던 수녀님이 그립습니다.
수녀님 스스로 평생 일꾸러기로 사셨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일들 넘어 깊이 자리한 수도정신과 성체에 대한 신심이
수녀님께서 가장 애쓰셨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 후배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하늘에서
소비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것이라 믿습니다.

故서송죽 마리도미니카 소비녀(향년 91세)

1931.9.9.~2022.5.24.

하느님에 대한 열망으로 기도와 피정 연구에 열심이셨던
서 마리도미니카 수녀님, 세월의 흐름과 함께 모든 기억들이
다 희미해지신 수녀님께서 이름 대신 기억하신 것은
'나는 천주교 신자요.'이셨습니다. 수도자라는 신분도,
수도자로서 행했던 소임도, 심지어 이름까지도 잊으셨지만,
천주교 신자라는 사실만은 뚜렷하게 기억하시며 힘주어
하셨던 그 고백을 오늘 여기남아 있는 저희도 수녀님과 함
께 해봅니다. 이 암울한 시대의 표징 안에서
천주교 신자인 수도자로 불림을 받은 소비녀들의
소명을 다시금 되새깁니다.



故유금지 레지나 소비녀(향년 93세)

1928.12.14.~2022.7.28.

1950년 4월 20일 그토록 소망했던
수도생활의 길에 올라 한결 같이 주님만을 따랐던
유 레지나 수녀님은 사도직 중에 겪은 고통과
오랜 후유증에도 늘 기쁨을 잃지 않고 언제나 감사하는
모습으로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소비녀였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선물로 받아들이며 살아온
삶의 지혜와 수도 정신을 재미있고 푸근한
유머 속에 담아 후배들에게 전해주시던 수녀님의
사랑스러움을 잊을 수 없습니다.



별이 된 소비녀들



故최영운 이나시오 소비녀(향년 92세)
1931.9.15.~2023.3.4.

시골 공소에 배달되던 잡지를 보면서 어린시절부터 수도자의 꿈을 키우셨던 최 이나시오 수녀님, 72년 수도 여정 동안 수녀님이 가장 마음을 쓰신 것은 기도생활이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한평생 오롯한 기도의 삶, 특히 후배 소비녀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더러는 후배들에게 안수도 해주시기도 하셨던 수녀님, 이제 하늘에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마주 뵈고 고운 웃음 웃으실 수녀님께 후배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따스한 안수 청해봅니다.



故조춘자 예레미야 소비녀(향년 74세)
1948.7.27. ~ 2023.7.18.

평생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도직을 하시며 아이들과 함께 수도 여정을 걸어오신 조 예레미야 수녀님, 누가 조금이라도 아프다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고 이것저것 몸에 좋다는 것들을 살뜰히 챙겨 가만히 손에 쥐어주고 가시고, 건강하실 때 날마다 절두산 성지를 찾으셨던 수녀님의 기도 속에는 가난하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얼마나 봉헌하셨을지요. 저희를 위해 항상 기도해주셨던 수녀님의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故김은숙 비비안나 소비녀(향년 92세)
1931.5.27.~2023.7.6.

세상 모든 생명을 따뜻하게 품어 안는 엄마 같은 소비녀, 김 비비안나 수녀님은 1961년 4월 28일 입회하여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평생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전교 수녀의 삶을 아낌없이 봉헌했습니다. 함께 사는 후배 수녀님들을 사랑으로 아껴주고, 노년의 불편함을 돌봐주는 분들을 존중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깊은 감동을 남기고 떠난 수녀님의 여운 오래 기억합니다.



故권희집 요왕 소비녀(향년 99세)
1924.1.15.~2023.7.25.

수도회 초창기 회원으로 소비녀들의 역사의 증거자이며 이정표가 되어주었던 권 요왕 수녀님, 수녀님이 늘 나누어주신 초창기 신산했던 삶의 이야기 속에는 수도자로서 성가소비녀로서 자존 의식과 금지가 배어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생명을 돌보는 일에 던져진 강인함, 어떤 어려움에도 하느님의 보호를 신뢰하고 그 뜻을 읽어내는 지혜로움을 후배들에게 유산으로 남기신 수녀님은 언제나 우리를 굳건하게 지탱하는 뿌리입니다.



별이 된 소비녀들 ☆



故위덕자 엘리시오 소비녀(향년 72세)

1951.3.6.~2023.10.23.

1974년 5월 12일 입회하여 수도생활 49년 여정을
마치신 위 엘리시오 수녀님은 본당 사도직과
방문 사도직에 헌신하며 마치 외팔고 높은 골짜기 숨은
꽃처럼 조용하고 나지막한 소비녀의 삶을 살았습니다.
갑자기 찾아든 병고에도 늘 그랬듯이
스스로를 감당하고 다스리다가 마지막 길 또한
고요히 떠나신 수녀님의 여정에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 함께 걸어주셨음을 믿습니다.

꽃숨 흰나리 모임 (성소 모임)



길을 찾는 우리,
작으나 큰 사랑을 꿈꾸는 우리,
흰나리 꽃밭에서
양을 치시는 청년 예수,
그분과 함께 만나요.

대상 : 35세 미만 미혼 여성
일시 : 매월 넷째주 주일 오후 3시
장소 : 성가소비녀회 총원(4호선 길음역)
문의 : 010-8274-5801
정 예수아 수녀



성가소비녀회 초막 피정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성경 안에서
침묵을 통해
하느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

일시 | 토·일 언제나
장소 | 성가소비녀회 총원
대상 | 19~35세 미혼여성
문의 | 정 예수아 수녀
H. 010.8274.5801

하느님 앞에 작은 초막 지어 고요히 머물 수 있는
그곳으로 세상에 복이 될 당신을 초대합니다.